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

봉산동

발행일 : 2019년 9월 28일

펴낸곳 :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

전화 : 033.747.3334

메일 : gac033@naver.com

책임연구 : 김시동

연구보조 : 김나현

사진 : 박후연_드론촬영, 김용민_마을기록

디자인 : 도서출판 이음

일러스트 : 김정관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발행처와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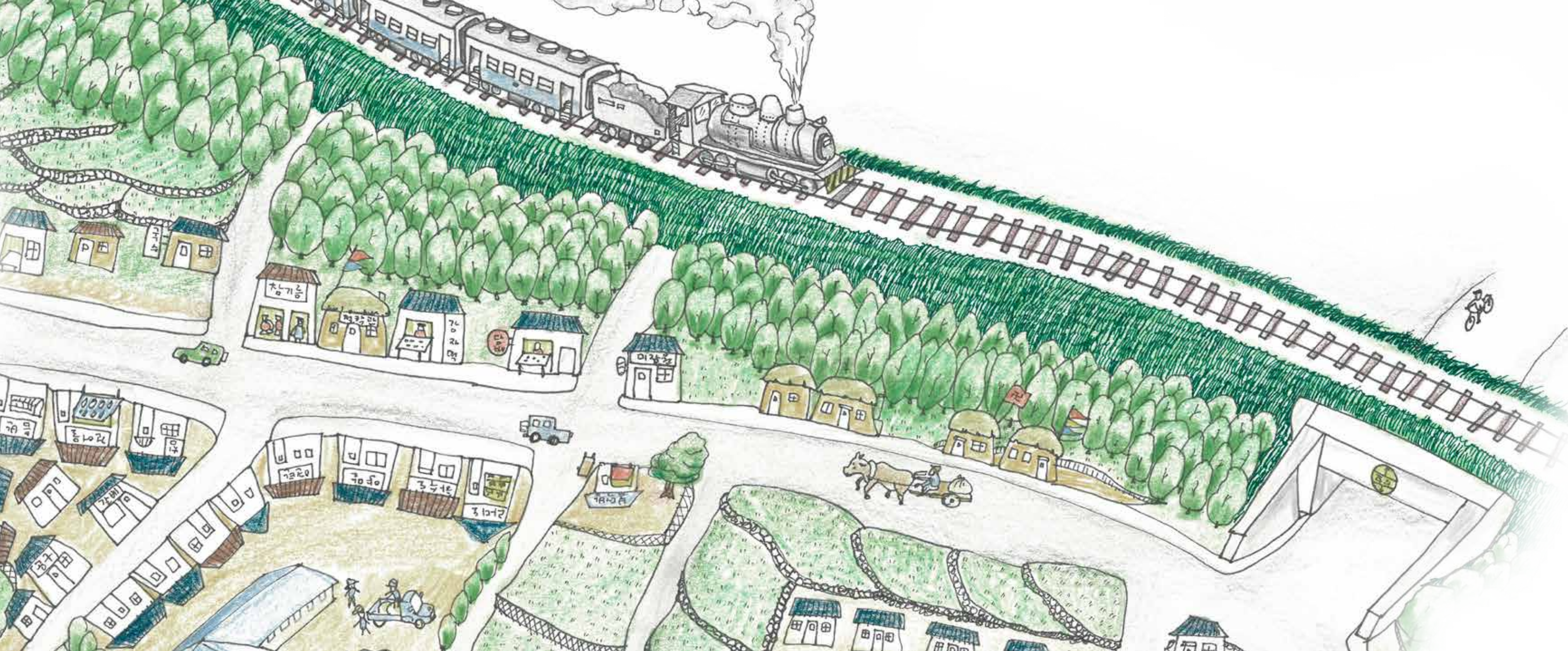
봉산동	08
시간의 숨터	20
봉산동 설명서	44
봉황이 품은 사람들	96
우물시장	162
기억이 만든 마을	172
소규모 재생사업	192





2019 봉산동 마을기록 작업은 원주시와 공공기관에서 제작, 발행한 공적자료에 기초하여 수집, 인용, 정리했음을 밝힌다.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사와 각종 통계, 문화자원을 역사적 근거에 기준을 두고 재가공했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참고문헌은 별지 기재했다.

봉산동 마을기록 작업에서 진행한 주민 인터뷰는 개인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재가공한 구술기록이라는 것을 밝힌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의 마을

봉산동

“사진을 매개로 한 공통기억의 지평 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장소와 기억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래서 소중한다”

-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이경민 기획자



봉산동 소개

봉산동(鳳山洞)은 원주시청에서 남동쪽으로 5km 떨어져 있고 소초면, 태장1동, 행구동, 반곡 관설동과 연접해 있다. 치악산 금대리에서 흐르는 원주천을 사이에 두고 개운동, 원동, 중앙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 전체 면적의 0.82%인 7.26㎢로 대지 2.76㎢ 농경지 1.69㎢, 임야 1.55㎢, 기타 1.26㎢이며, 도시와 농촌의 복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원주군 본부면(원주면)의 지역으로서 일리(一里)라고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중심이 되는 마을인 화천(화시래)의 이름을 따서 화천리(花川里)라고 하였다. 1937년에 본부면(원주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곳에 있는 봉산(鳳山)의 이름을 따서 봉산정(鳳山町)이라고 하고 1·2·3구(區)로 나누었다가, 1955년 9월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되면서 봉산 1·2·3동이 설치되었다. 1961년 연합동제 설치에 따라 봉산동으로 되었고 1970년 인구 증가에 따라 봉산동을 12동으로 나누었다. 1999년 1월 1일 행정구역 조정이 단행되어 봉산1·2동이 봉산동으로 통합되었으며 2019년 현재 21통 134반, 4,038세대, 8,97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원동 남산에서 바라본 봉산동과 우물시장 전경 1958



봉산동 전경 2019



봉산동 무위당길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봉산

봉산동(鳳山洞)은 봉산(233m)의 모양이 봉황이 날개를 펴고 원주를 바라보는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것으로 봉산의 끝 봉을 봉산미(鳳山尾)라 한다. 하늘의 상징인 봉황의 기운을 품고 있는 봉산에서 원주의 인물이 많이 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본은 봉산의 정기를 죽이기 위하여 봉산미 부근에 쇠를 박아 혈(穴)을 잘랐다. 그후 부터 봉산을 봉살되(鳳殺되) 또는 봉살미(鳳殺尾)라고도 불렀다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시민들의 뜻에 감동한 손창관(1863- 1951)은 1939년 봉살미 정상에 학봉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그 후 원주 설미회(雪眉會)의 회원들이 모여 시를 읽으며 독립투쟁을 의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일본 경찰에 의해 정자는 폐쇄되고 출입이 통제되었다.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학봉정은 관리 소홀로 퇴락하고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가 1991년에 복원했다. 이러한 역사를 품은 봉산은 원주 시민들의 민족정기가 살아있는 정신의 산이라 불려도 될 것 같다.



기억이 만든 마을

마을은 기억으로 형성된 사회적공동체이다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장소와 공간에는 각각의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야기는 삶이라는 형태의 모음과 문화라는 방식의 자음으로 해석되고 공유된다. 전쟁의 비극을 겪은 후 외국의 원조를 받으며 근대화의 초석을 일구어낸 마을의 삶이 시간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1950년대 판잣집과 초가집의 힘든 하루 하루를 견디며 삶을 일구어 온 기억의 수집은 들어주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봉황이 품은 듯한 어머니를 닮은 봉산의 뜰 아래에서 욕심없이 살아온 사람들, 수도가 없던 시절 우물 하나에 의지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전기가 없던 시절, 호롱불 하나로 가족을 밝혀온 마을의 역사를 읽어간다. 도심 속에 보물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봉산동에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

봉산동 마을기록은 시대의 삶과 문화, 원주의 옛 중심지이었던 장소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봉산동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원주의 중심지로 기능을 해온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원주경찰서와 원주세무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원주초등학교와 원주교육청이 있었고 원주 사방관리소가 있던 공간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 장일순 선생, 지용주 선수 등 현대사를 대표하는 큰 인물들이 관계 맺고 살아 온 원주를 상징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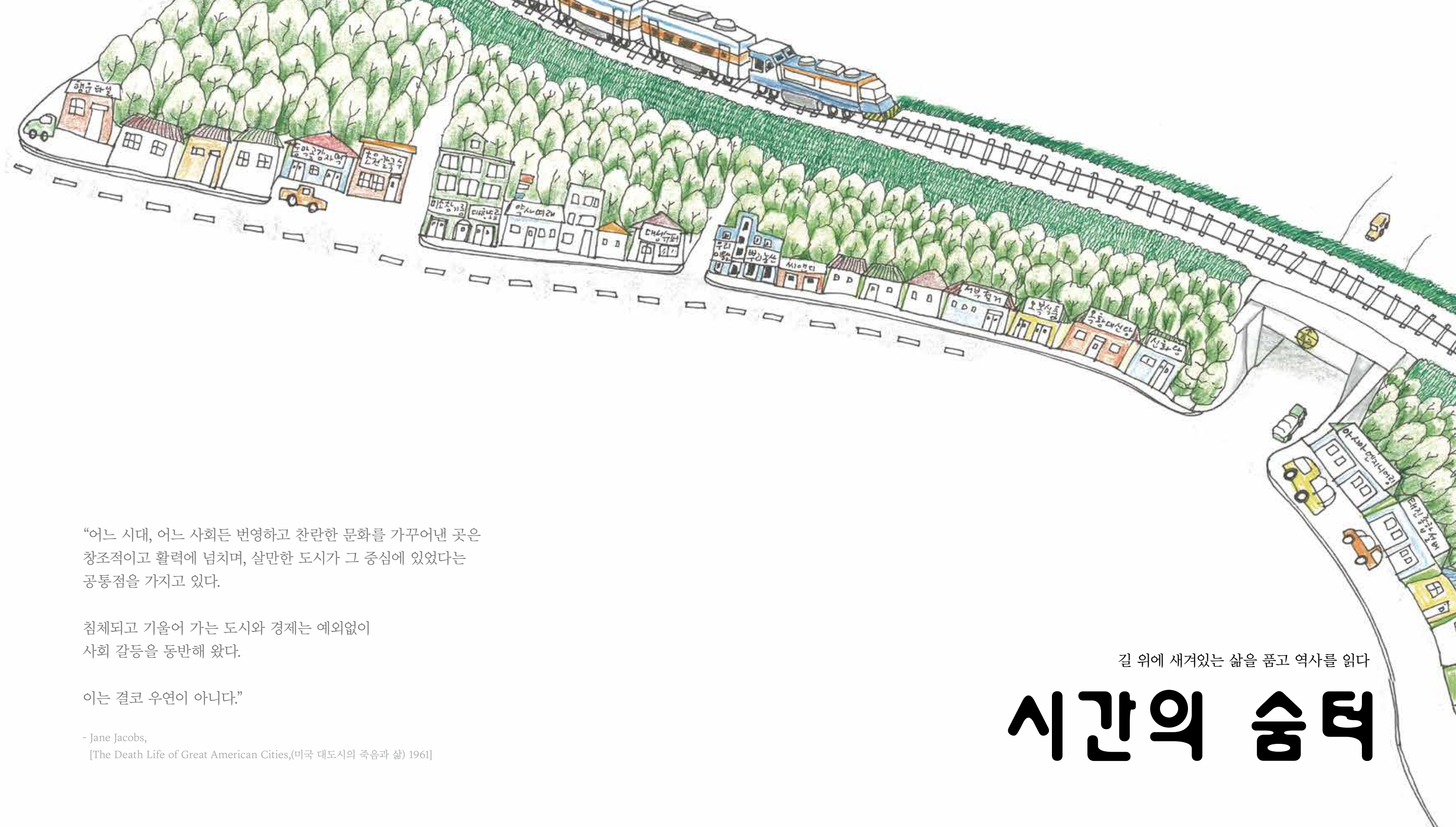
봉산마을 2019

시간의 기억이 만든 자산

도시재생은 신도시 개발과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마을이 공동화되어 들어가는 원도심 지역이 주 무대가 된다. 도시의 발전을 견인했던 옛 도심에는 사람들이 살아오며 만든 역사와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새롭게 조성되고 개발된 도시공간에서는 찾아볼 수도, 경험할 수도, 걸어볼 수도 없는 시간이 만든 시대적 자산이다.

원도심에는 지역이 성장해 온 다양한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얹혀있다. 바람직한 도시재생은 공간의 장소성과 시간의 역사성이 상실되지 않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복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번영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꾸어낸 곳은
창조적이고 활력에 넘치며, 살만한 도시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침체되고 기울어 가는 도시와 경제는 예외없이
사회 갈등을 동반해 왔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 Jane Jacobs,
[The Death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1961]

길 위에 새겨있는 삶을 품고 역사를 읽다

시간의 숨겨진



길

길 위에 새겨있는 삶을 품고 역사를 읽다

봉산동은 동쪽의 봉산을 병풍처럼 뒤로 하고 앞으로는 원주천을 경계로 서쪽의 중앙동·평원동과 접해 있고 중앙선 철도가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다. 원주천을 봉천이라 불렀을 정도로 봉산동 사람들은 원주의 젖줄인 원주천과 삶을 공존하며 함께 흘러가고 있다. 봉산의 뜰에는 오랜 역사의 이야기와 공간이 연결된 다양한 골목길이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다. 신도시의 급조한 듯한 길이나 이름과는 차원이 다른, 걸으면 걸을수록 새로움을 읽을 수 있는 길이다.

봉산동에는 조선의 성리학자 임윤지당을 기념하는 임윤지당길과 공동체의 교류 공간이었던 우물시장길이 있다. 또한 생명과 협동, 모심의 걸음을 따라가는 무위당길, 원주천의 옛 이름인 봉천길과 배가 머문 장소를 뜻하는 배말길, 봉황을 닮은 산을 상징하는 봉산길이 철길 옆으로 나 있다. 봉산길을 지나 학봉정 길을 오르다 보면 조선말 의병장으로 일본이 가장 두려워 했다는 관동창의대장 민공호의 묘소가 봉산의 중턱에서 원주를 내려보고 있다.



봉산동 우물시장길 2019



무위당 길 걷기. 생명협동문화제 2019



사람

생명나눔의 공동체

봉산동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으로 역사의 현장에는 봉산의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10대 대통령을 지낸 최규하 대통령(1919~2006)이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1970년대 반독재 투쟁과 한살림을 창립하고 생명운동을 펼친 무위당 장일순(1928~1994) 선생이 평생을 살아온 곳이다. 또한 한국 복싱의 부흥기를 이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지용주 선수(1948~1985)와 치악의 상징인 비로봉에 3기의 돌탑을 쌓은 용창중씨(?~1974)가 살았던 마을이다.

공공기관으로는 봉산동행정복지센터,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경찰서, 원주옷문화센터 등과 사회복지시설로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천사들의 집’이 있다. 우물시장길에는 돌봄공동체 ‘할머니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 1896년 설립된 원주 최초의 공립학교인 원주초등학교가 있다.

봉산동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만여 명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원주의 교육과 행정, 치안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지역이다. 당시 봉산동에는 원주교육청(이후에 원주도서관)과 원주세무서 등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원주천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공공기관의 이전은 인구유출과 도시공동화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1993년 이후 삼광택지 개발 및 삼익아파트와 동신아파트 건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12,000여 명 까지 증가했다. 특히 구)봉산1동 재개발지역에 배말타운아파트가 신축되어 2004년에 입주했다. 하지만 원주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시의 외곽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봉산 연대기

1800



- 1896** 원주군 공립소학교 설립
(현재 원주초등학교)
- 1914**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화천리(花川里)로 변경
- 1937** 본부면(원주면) 원주읍으로 승격
봉산의 이름을 따 봉산정이라
하고 1·2·3구로 분리
- 1939** 학봉정 건립
(한국전쟁으로 소실)
- 1946** 해방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봉산정(鳳山町)을 봉산동(鳳山洞)
1·2·3구로 변경

1950



- 1954** 관동창의대장 민공호 묘소
봉산동 현 위치로 이전
- 1955** 원주읍이 원주시로 승격,
봉산 1·2·3동 설치
- 1959** 원주교육청 신축
(1978년 명륜동으로 이전)
- 1960** 원주교(쌍다리) 준공
- 1961** 연합동제 실시에 따라
봉산 1·2·3동을 봉산동으로 변경
- 1962** 원주대학 개교(현 상지대학교)
- 1964** 원주경찰서 봉산동 현 위치로
이전 신축

1970



- 1970** •인구 증가에 따라
봉산동을 1·2동으로 분리
•개봉교 준공
- 1972** 천주교 봉산동본당 설립
- 1976** 봉산동 당간지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9호 지정

1980



- 1980** •옛 봉산2동 파출소 개소
(2011년 폐소)
•치악교 준공
- 1982**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지정
- 1985** 원주교육도서관 개관
(현재 단계동 원주교육문화관)
- 1989** 천사들의 집 개원

1990

- 1990**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개관
- 1991** 학봉정 복원
(1939년 건립, 한국전쟁으로 소실)
- 1995** •원주시·군 통합, 원주시 설치
•삼익아파트 준공
- 1996** 원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
및 100주년 기념관 개관
- 1999** •행정구역 조정으로
봉산 1·2동 봉산동으로 통합
•임윤지당 기념비 건립
(2016 단구동 임윤지당 선양관으로
이전)
•독거노인 돌봄공동체
'할머니의 집' 개소

2000



- 2000** 원주시역사박물관 개관
- 2004** 배말타운아파트 준공
- 2009** 원주웃문화센터 개관
- 2016** 봉산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준공
- 2019** •원주역사박물관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현재 21통 134반으로 운영



땅의 이름

개릉골 (골)

옛 봉산1동에 있는 골짜기로 개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개량골이라고도 한다.

개륜골 (마을)

옛 봉산1동에 있는 마을로 천사들의 집 동쪽에 위치해 있다. 개량골이라고도 하며 새로 만들어진 마을(개량해서)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개구리봉(산)

봉산동 못골에 있는 산봉우리로 모양이 개구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개봉교 (다리)

남부시장 동쪽 개운동과 봉산동 당간지주가 있는 구정을 연결하는 다리로 1970년에 개설했다.

구정(龜亭, 九停) (마을)

봉산동 당간지주가 있던 마을로 구정(九停)이라고도 한다. 7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냇물이 당간지주가 서있는 벼랑 밑으로 돌아나갔고 그 벼랑에 거북이와 같은 넓은 바위가 있어 구정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구석정(龜石亭)

봉산 남쪽 기슭에 있었다고 하는 정자이다. 은와(隱窩)라고도 한다. 1640년 동양 신사순(東陽 申思洵)이 지었다고 한다. 관찰사 백주 이명한(白洲 李明漢)이 지은 기문에 ‘동양 신사순이 원주의 동천 위쪽에 아담한 정자를 지어 놓고 그 정자의 이름을 은휴(隱休)라 하였기에 이에 기문을 짓는다.... 일산(一山)이 양 날개를 편 남쪽에 돌을 묶어 세웠고 돛대와 입암(立岩)이 서로 대하고 있는 곳이 봉산의 주촌(舟村)이다. 물이 영원(領原)에서 나와 백운(白雲) 서북에서 합수하여 이것이 구비치고 감돌아 단구역 아래서 구불어져 향교 사당간(射堂間)을 감돌아 고을의 북쪽에서 큰 강으로 흘러 들었으니 이것이 동천(東川)이다’라고 하였다.

나흘가리들 (들)

жат나무골 남쪽에 있는 들을 말한다. 들이 넓어서 가는데 4일이나 걸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너르내 (하천)

봉산동 삼광택지에서 영랑동으로 건너는 곳에 있는 하천이다. 넓은 시내라 하여 너르내라고 했다.

능골1 (골)

봉산동 번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육판바위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1) 조선 후기에 왕릉을 보기 위해 다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유래2) 커다란 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능골은 ‘늘어지다’의 뜻을 가진 ‘늘’에 골이 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늘+골)능골로 된다. 능골, 능골은 대체로 골짜기가 길게 이어져 있거나 얇게 늘어진 곳에 많이 붙는 지명이다.



번재마을 능골 성황당

능골2

모래기에서 번재고개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번재 종점의 숲속에는 능골성황당이 있다.

동부시장(東部市場) (시장)

원주시의 동쪽, 봉산동 배말타운 옆의 원주천변에 있었던 시장이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개설되었던 시장이다.

로아노크 광장 (광장)

당간지주가 있는 원주천변에 있었다. 미국 로아노크시와 원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만든 광장이었으나 교류가 끊기고 활용성이 없자 2012년 철거했다.

며느리봉 (산)

소초면 홍양리와의 경계에 있는 봉우리를 말한다. 옛날 이곳에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워낙 인색한데다가 마음씨마저 좋지 못해 항상 마을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심술궂고 욕심많은 이 노인이 하루는 외양간에서 거름을 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목탁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화가 치밀었지만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지라 똥을 푹 떠가지고 나가 드시라고 내밀었다. 스님은 공손히 합장을 하고서 바람 속에 똥을 담고 가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부엌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가 얼른 뒤주를 열고 쌀 한바가지를 퍼가지고 시아버지 몰래 스님 뒤를 쫓아가 시주

를 하며 시아버님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다. 스님은 다시 침착하고 정중한 합장으로 그저 고맙다는 태도로 돌아서 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뇌성 벽력을 치며 급기야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고 대청마루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며칠 전 탁발하러 왔던 스님이었다. 막 쏟아지는 비속에서 스님은 다급한 손짓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나 며느리는 밖으로 나갔다. 스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는 그대로 성급히 뛰었다. 한참 소나기 속을 뚫고 산중턱에 이르러서야 스님은 며느리를 향해 “부처님께서 님의 시아버님을 별주시기 위해 그러니 이제부터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가는 데까지 뛰시오” 그러고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굉장한 큰 천둥소리와 함께 몇 군데 벼락을 치는데 그때마다 마을부근에 있던 산봉우리가 하나씩 무너졌다. 자신의 집은 이미 깊은 물 속에 잠기고, 이때 마지막 자신의 집터를 치는 벼락으로 인해 땅 속에 살고 있던 용이 승천하는 것이 보였다. 그 때문에 그곳엔 괴상한 골짜기가 파이게 되었는데 그곳을 용터지기라 부르며 며느리가 올라가 홍수를 피했던 산을 며느리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모래기 (마을)

못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모락·모약동이라고도 한다. 모래기는 ‘물’에 접미사 ‘-아기’가 붙어 물+아기>몰아기>모라기>모래기가 되었다. ‘산모퉁이’의 뜻이다.

모래기천 (내)

번재와 모래기, 고둔치의 물이 모여 삼익아파트 남쪽에서 화천과 만나는 내를 말한다. 이 합천 물은 다시 원주천(봉천)으로 흘러간다.

모약동(毛藥洞) → 모래기

모약동은 모래기의 약수터 때문에 후에 낙(樂)자가 약(藥)로 바뀌었다고도 한다.



못골 (마을)

모래기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커다란 연못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진고개(戊辰-) (고개)

봉산동에서 태장 1동 영천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효자 황무진이 이곳에서 태어났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황효자의 효성은 하늘에 닿아 그가 부모님의 약을 지어 밤중에 이 고개를 넘을 때는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업고 넘거나 호위했다는 전설이 있다.

배말 (마을)

옛 봉산1동 파출소 아래, 중앙성 철교 아래에 있었던 마을을 말한다. 주촌이라고도 한다. (유래1) 봉산천(원주천)이 이 앞으로 흘러서 배가 드나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유래2) 지형이 배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번재(마을)

살대울 북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본재, 본현이라고도 한다.

번재(고개)

능골마을에서 모래기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번재 저수지 (못)

번재 북쪽, 능골의 서쪽에 있는 저수지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보문사 (절)

봉산동 봉산 북서쪽 무진길 옆에 있는 절이다. 1940년 평원동에 있던 포교당을 이곳으로 옮기고 보문사로 이름을 지었다.

봉산 (산)

원주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을 말한다. 봉산미·봉살미라고도 부른다. (유래1) 봉황의 꼬리 부분 같다하여 봉산·봉산미(鳳山尾)라고 하였다. (유래2) 일제시대 일본군이 원주에 와서 봉황을 닮은 봉산의 모양을 보고 원주에서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날 것이라 생각하고 봉의 꼬리에 해당되는 곳에 큰 말뚝을 박아 봉의 혈을 자름으로써 봉산의 정기를 죽였다 하여 봉살뢰(鳳殺뢰) 혹은 봉살미(鳳殺尾)라 불렀다 한다. (어떤 자료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봉산의 맥을 끊었다고도 쓰여있다)

‘봉산미, 봉살미, 봉살뢰’는 봉산+뢰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봉산천을 봉천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의 봉산은 원래 ‘봉’으로 불리다가 (봉+산) 봉산이 되었고 거기에 다시 ‘뢰’가 결합하여 봉산+뢰>봉산뢰> 봉산메>봉산미>봉살미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봉산로 (도로)

쌍다리에서 국형사에 이르는 6km의 도로를 말한다. 봉산동을 경유하여 행구동을 통과하므로 봉산로라고 한다.

봉천(鳳川) (내)

지금의 원주천으로 판부면 금대리 치악산 남대봉에서 시작하여 원주시가지를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내로 호저면 주산리에서 섬강에 합류한다. 원주시의 동쪽을 흐른다고 해서 동천(東川)이라고도 부른다. 봉산의 이름을 따서 봉천 또는 봉산천이라고도 부른다. 때로는 영랑천(화천)과 합치는 치악교 위쪽까지를 봉천, 봉산천이라고 부르고 그 하류, 즉 봉산동 앞부터는 원주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날 봉산동 주민들에게는 먹을 감고 빨래도 하는 생명의 물이 흐르는 하천이었다.

봉산동성당 (성당)

봉산동 삼광택지 북쪽에 있다. 1972년 신현봉 신부가 부임하여 건물을 지어 원동성당으로부터 분리 설정되었다. 본당 관내에는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엔젤어린이집, 천사들의 집이 있다. 그리고 1931년부터 천주교공원묘지가 있으나 현재는 사용이 폐쇄되었다.

살대울 (마을)

화시래 북쪽, 번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태종이 신하에게 명하여 화시래에서 쏜 새가 화살에 맞아 이곳에 와서 떨어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살대’는 화살대를 의미하고 ‘울’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여울을 의미한다.



봉산동 삼광택지

삼광(三光) (마을)

치악교 건너편에 있는 택지를 개발한 마을로 삼광택지라 부른다. 옛날에는 세광택·세광마을이라고도 했다. 옛날 이곳에 박필남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옛날 이 근방에는 집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서울서 큰 부자 한 사람이 오더니 사방 터를 두루 살핀 후 지금의 삼광에서 너르내로 가는 길목에 큰 기와집을 지었다. 그리고는 근처의 땅을 모조리 사들여 집터로 담과 담을 쌓았는데 삼광부락 전체가 담 안에 들어갔으며 담은 꼭 2중으로 쌓았다고 한다. 이토록 넓은 박씨집에는 큰 광이 세 개 있었는데 첫째 광에는 무기, 둘째 광에는 식량, 셋째 광에는 금은보화를 쌓아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필남의 집이 ‘세 광집’이라 불리기도 했었는데 박필남이 이토록 후미진 곳에 큰 집을 지은 것은 나라를 뒤집어 엮는 역적모의에 쓰려고 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 박필남은 이곳에 집을 짓기 전에 집 위쪽에다 조상의 산소부터 옮겨 놓았다고 하는데 이 자리는 전부터 풍수들이 산소를 볼 때마다 역적이 날 자리라해서 산소 쓰기를 피해왔었다는 말도 있다. 그런 후 무슨 곡절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조정에서 박필남을 잡으라는 영이 떨어졌다. 영을 받은 강원감영에서 군사들이 나와 찾았으나 박필남은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군졸들은 역적의 집이라고 하여 집에 불을 놓았다. 그래도 집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박필남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담을 허무니 2중으로 된 담사이의 통로에 숨어 있던 박필남을 붙들었다고 한다. 그가 붙들려간 후 집터는 다시 밭으로 변했다는데 이름만은 여전히 ‘세광택’ 혹은 ‘세광마을’로 불리다가 누가 한문으로 음역한 것인지 삼광(三光)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삼익아파트와 마을이 있고 아직도 삼광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신선골 (골)

중앙선 철도가 지나는 개륜마을로 들어가는 굴다리 북쪽, 신선암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약 40여 년 전에 신선암이 건축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아랫배말 (마을)

봉산동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의 배말타운아파트 주변을 말한다. 배말 아래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아리랑고개 (고개)

기와집담에서 동쪽으로 육판바위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앵두나무골 (마을)

번재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도 앵두나무골이라 부른다.

양지담 (마을)

살대울 남서쪽을 가리킨다. 살대울 북동쪽은 웃담이라고 말한다.

열무당(건물)

우물시장터에 있던 군막사를 말한다. 원래 이곳은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었다고 전해온다. 이후에 우물시장이 형성되었다가 지금은 주택과 상가가 들어서 있다.

예천(醴泉) (샘)

배말에 있던 약수터를 말한다. 바위 아래에서 나왔는데 함처럼 만들고 뚜껑을 덮었다고 한다. 현재는 없어졌다.

용내미 (마을)

모래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옛날에 용이 났기에 용내미라고 한다.

우물시장(장)

현 원주초등학교 동남쪽에 있던 시장을 말한다. 원래는 넓은 터로 군사훈련을 하던 곳으로 열무당이라는 군막사가 있었으나 일제 때 없어지고 우시장이 들어섰다가 우물시장을 기반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원주대학터 (터)

봉산철교 앞에 있는 현재 상지대학교의 전신인 옛, 원주대학의 건물터를 말한다.

유암 (마을)

화시래의 동쪽, 중앙선 철도 서쪽을 말한다.

은와(隱窩, 恩窩 / 정자) → 구석정

은휴와(恩休窩 / 정자) → 구석정

입춘단 (제단)

삼광부락과 영랑촌 사이에 있었다는 제단을 말한다. 삼광부락과 영랑촌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데 5칸의 기와집이며 사방에 흙돌담을 치고 동쪽으로 문을 냈다고 한다. 매년 입춘날에 흙으로 소를 만들어 단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지방 수령이 제주가 되어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언제 시작되고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작은쇠파니골 (골)

모래기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소초면 홍양리에서 남쪽으로 난 큰 쇠파니골과 비교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жат나무골 (골)

살대울 동쪽, жат나무골 마을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정지박들 (들)

화시래 동쪽에 위치한 들을 말한다.

천왕벌 (들)

봉산동 당간지주 앞에 있었던 넓은 들을 말한다. 신라시대 절 천왕사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천왕사터(天王寺) (터)

봉산동 당간지주 부근을 말한다. 또는 봉산 8부 능선 골짜기, 미륵암 위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신라시대 절, 천왕사가 있었다고 하며 당간지주가 남아 있다. 조선 성종대에 폐사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학봉정(鶴鳳亭) (정자)

태장1동과 경계하고 있는 봉산동의 북쪽 끝 봉산미(鳳山尾) 정상에 있는 2층 누각의 학봉정(鶴鳳亭)은 1991년에 복원 된 정자로 원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학봉정 건립에 대한 기록은 1941년 ‘강원도지’ 원주군 편에 수록되 기 2년 전인 1939년(소화 14년, 기묘) 4월에 손창관(1863-1951)의 주도로 일제의 민족정기 말살에 항거하기 위하 여 건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시래 (마을)

봉산동 살대울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궁위전, 화천, 화실천, 화천리, 실대라고도 한다.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이 그의 스승 윤곡 선생을 찾아 왔다가 만나지 못하여 쓸쓸히 돌아가던 길에 태종이 이곳에 이르렀다. 서쪽을 향 해 날아가는 기러기(혹은 소리개)를 보고 태종은 호반(무관)에게 쏘아 떨어뜨리면 새가 들고 있는 지역을 주겠노 라고 하였다 한다. 호위하던 호반이 활을 쏘아 새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태종이 기뻐하며 새가 떨어진 부근 일대를 호반에게 하사하였다. 그후 이곳 사람들은 활이 떨어진 자리라 하여 궁실(弓失)이라 하였으며 이곳을 흐르는 하천 을 궁실천(弓失川)으로 부르다가 음역하여 화실천 또는 화시래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화천(華川 / 마을) → 화시래
화천리(花川里 / 마을) → 화시래

자료: 원주의 지명유래1999 원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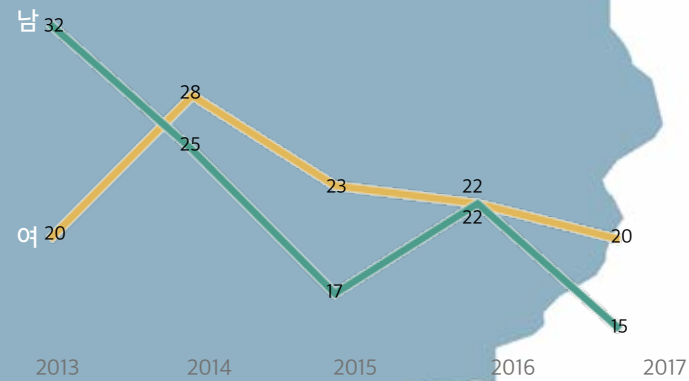
원주천과 중앙선 철도

숫자로 기록된 봉산동

행정구역

1962	봉산동	53반	9.13km ²
1971	봉산1·2동	65반	9.13km ²
1981	봉산1·2동	27통 128반	7.27km ²
1991	봉산1·2동	28통 131반	7.25km ²
1998	봉산1·2동	40통 174반	7.25km ²
2001	봉산동	39통 168반	7.27km ²
2010	봉산동	21통 134반	7.26km ²
2019	봉산동	21통 134반	7.26k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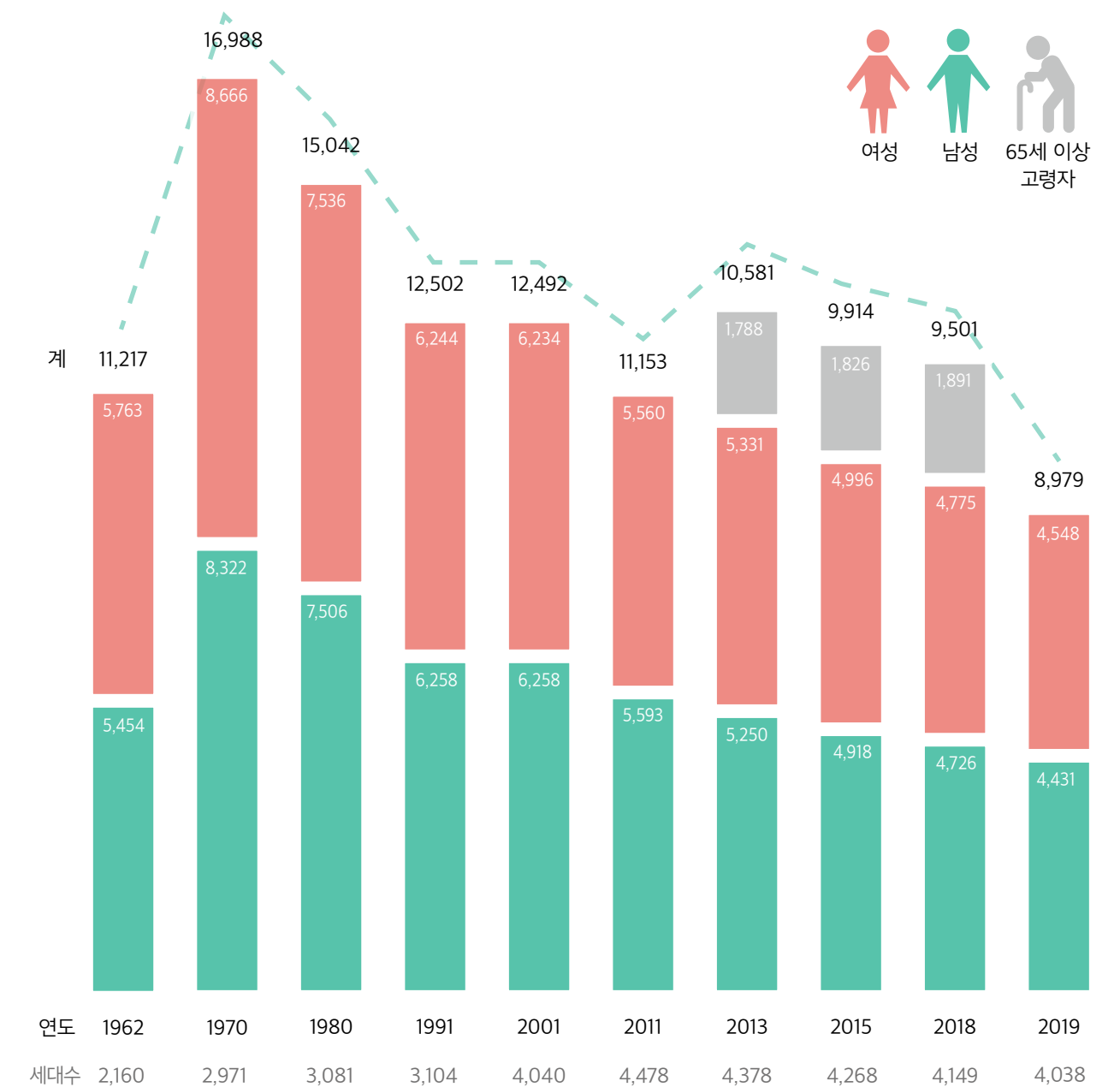
출생현황



거주지 유형 2015 인구주택 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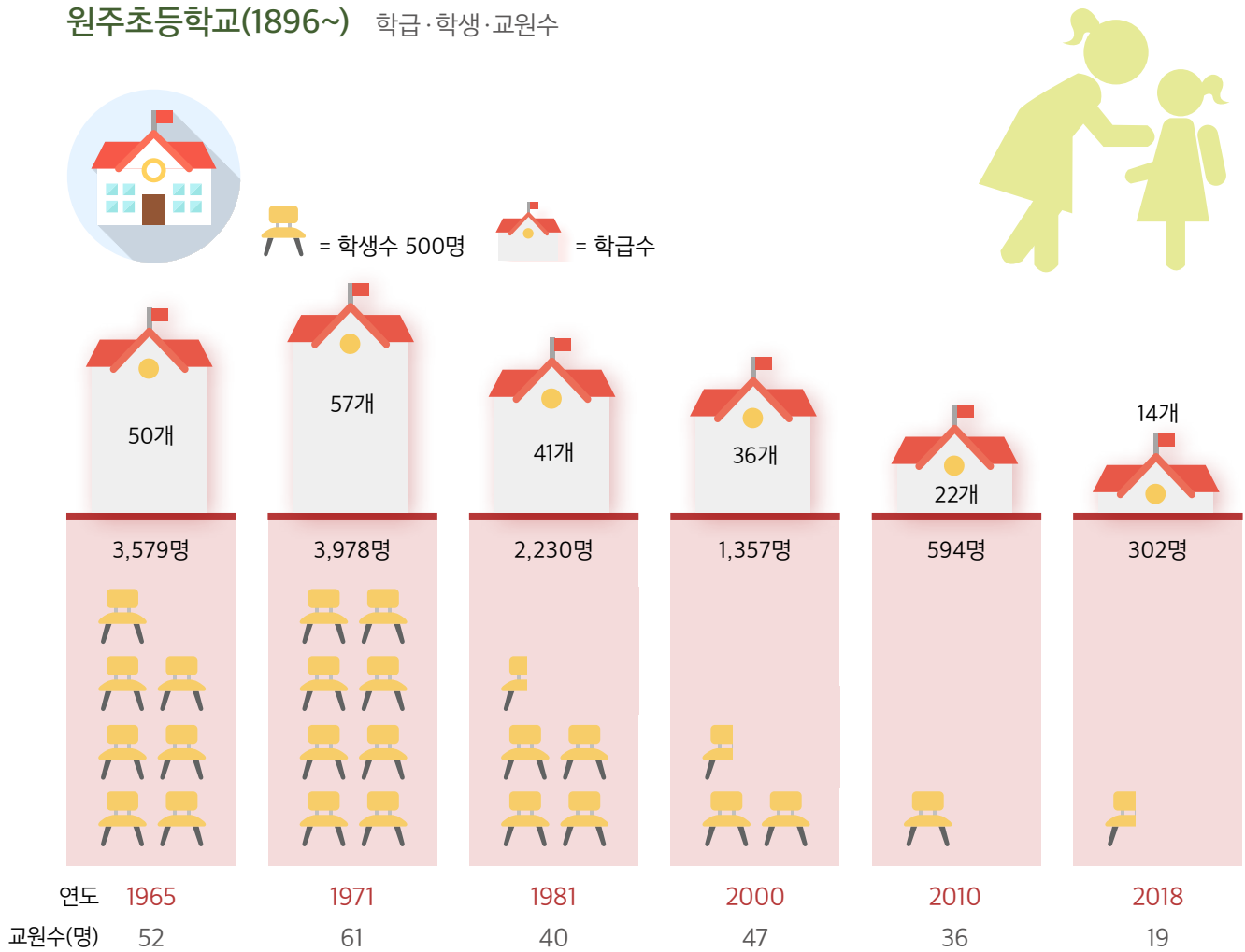
계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3,316	1,410	1,801	69	36

인구통계



교육현황

원주초등학교(1896~) 학급·학생·교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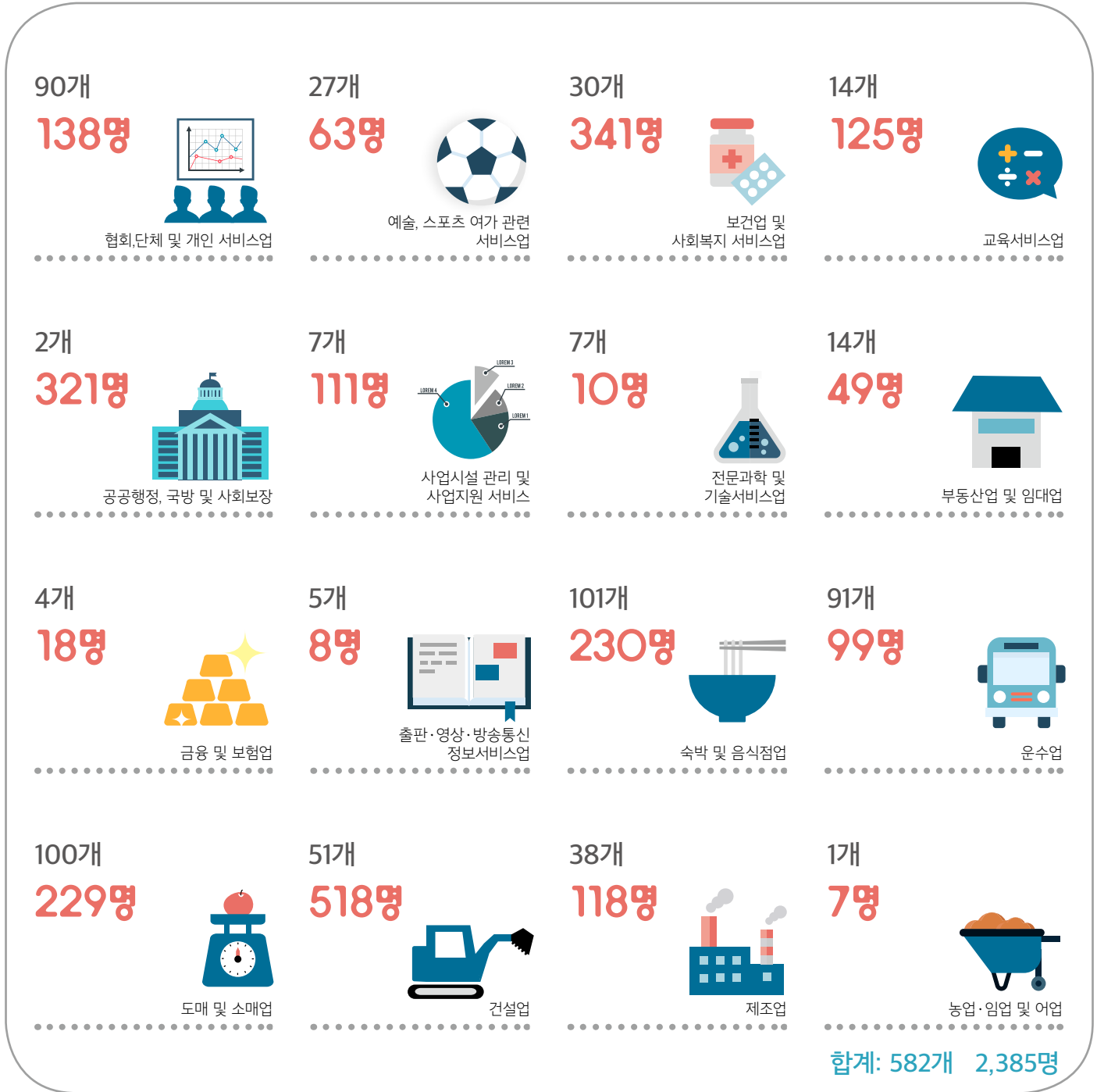


원주대학(1963~) 학과·학생·교원수

	연도	학과수	학생수	교원
	1965	5	275	20
	1970	5	460	46

산업별 사업체 현황 (2019.8.현재)

사업체·종사자수



자료: 원주시 통계정보 <http://stat.wonju.go.kr>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공간의 장소성과 시간의 역사성이 상실되지 않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복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봉산동 한 걸음 더

봉산동 설명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원주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원주초등학교
1896년 9월 17일 설립

원주초등학교는 1896년 9월 17일 원주군 공립소학교(심상과 3년)로 설립되었다. 초대 교장은 원주군수 김영규(金泳圭)가 겸임하였고, 1896년 11월 16일에 이승의(李昇義) 교사가 임명되었다. 강원도 원주군 본부면 후동(지금의 원주시 중평동)에 가교사를 지어 8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 58명과 교원 4명으로 출발하였다. 수업연한 3년에 교과목은 수신(修身)주 01)·독서·작문·습자(習字)주 02)·산술·체조 등이었다.

1906년 8월 27일 일제 통감부에 의해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보통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 10년간 우리 지역의 교육을 수행해 온 것이 원주군 공립소학교(원주초등학교)인 것이다. 1911년 6월 보수과를 설치하고 7명의 교원과 학생 159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원주공립보통학교로 개칭하고 보수과는 원주공립간이학교로 승격하였다. 1912년 9월 여학생 학급을 설치하여 원주지방 여성교육의 효시가 되었으며, 1920년 4월 수업연한을 남자는 6년, 여자는 4년으로 연장하였다. 1922년 3월 원주공립간이학교를 폐지하고 여학생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뒤 장경호(張慶浩)가 교지 33,058㎡(1만 평)를 희사하여 1926년 4월 봉산동 현재의 위치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망곡례¹ 사건(望哭禮事件)이 있었다. 망곡례 사건이란 당시 순종의 서거로 전국적인 망곡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원주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자 일본인 교장 시노하라(篠原實)가 등교 거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학교 교정에서 정식으로 망곡례를 거행하게 한 사건을 말한다. 시노하라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총독부의 문책을 받고 좌천되었다.

1 망곡례 조선 시대에 국상이나 국기일에 직접 빈소와 능묘에 가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슬피 곡을 하며 지냈던 의례

1896년, 봉산동에
원주군 공립소학교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원주초등학교 1931



원주초등학교 1938 47

1996년 6월 개교 100주년을 맞아 백주년기념관을 개관하고 2010년 12월에는 최규하 대통령기념관 인 현석관을 개관했다. 교목은 굴피나무, 교화는 해바라기이고 교훈은 ‘슬기롭게 배우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씩씩하게 자라자’이다. 2001년 교육활동 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2009년 교원능력 개발평가 선도학교, 2010년 교육과정 자율학교에 지정되었다. 2019년 108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현재까지 총 27,21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주초등학교 운동회 1940



원주초등학교와 원주시 전경, 오른쪽에는 원동성당이 보인다. 1955



모자원

전쟁미망인 사택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 지금의 무위당 길에는 ‘모자원’이라는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군경간부의 유가족을 위한 전쟁미망인보호 시설이 조성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하꼬방이라고 부르는 판잣집 60호를 세줄로 지어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자녀들이 입주하여 살게 하였다. 이곳에서는 미용과 바느질 수선 등을 교육하는 기술학원을 운영하여 재기를 도와주었다. 한때는 윤락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부녀직업보도시설로 전환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모자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많은 전쟁미망인들이 발생하면서부터이다. 1952년부터 정부는 「조선구호령」 제12조에 의하여 사설모자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1953년 8월 국립중앙전쟁미망인수용소를 설립하였고, 1954년 1월 이를 국립서울모자원으로 개칭, 운영하였다. 1953년 우리나라를 통틀어 24개소였던 모자원은 1958년에 62개소로 늘어나 건국 이후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였다. 이를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립 1개소, 도립 6개소, 법인 36개소, 사설 19개소였고, 수용인원은 어머니와 자녀를 합하여 모두 7,764명이었다. 그 뒤 1961년 12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여 모자원의 운영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였다.



봉산동 모자원 1950년대 후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모자원 전쟁미망인 가족들



봉산동 문화재

봉산동 당간지주 原州鳳山洞幢竿支柱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9호 1976.06.17. 지정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절에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는 당이라는 깃발을 걸어두는데, 이 깃발을 다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 하며,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시켜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비석거리라고 부르는 여주상회 앞의 ‘천왕사(天王寺) 터’ 라고 알려진 곳에 있는 봉산동 당간지주는 높이 4.3m로, 위쪽으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져 뿔족한 모양인데, 각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장식이 없는 두 지주 사이에는 방형(方形)의 간대석(竿臺石)을 놓고 그 중앙에 둥근 간좌(竿座)를 설치하였다. 정상에서 밑으로 장방형의 간구(杆溝)가 설치되었다. 형식과 조성 수법으로 보아 고려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지명은 구정(龜亭)으로 현재는 냇물이 약 100m 정도 나가 있지만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냇물이 당간지주가 서 있는 벼랑 밑으로 돌아나갔고 그 벼랑에 거북이 형상의 넓은 바위가 있어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당간지주가 서 있던 곳은 전해지는 이야기로 신라시대 말기의 천왕사(天王寺)가 있던 곳이라 하나, 지금은 주택지로 변하여 옛 절터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전쟁으로 한쪽 지주가 절단된 것을 1980년 4월에 복원했다.



1938년 옛 봉산동 당간지주
(사진 :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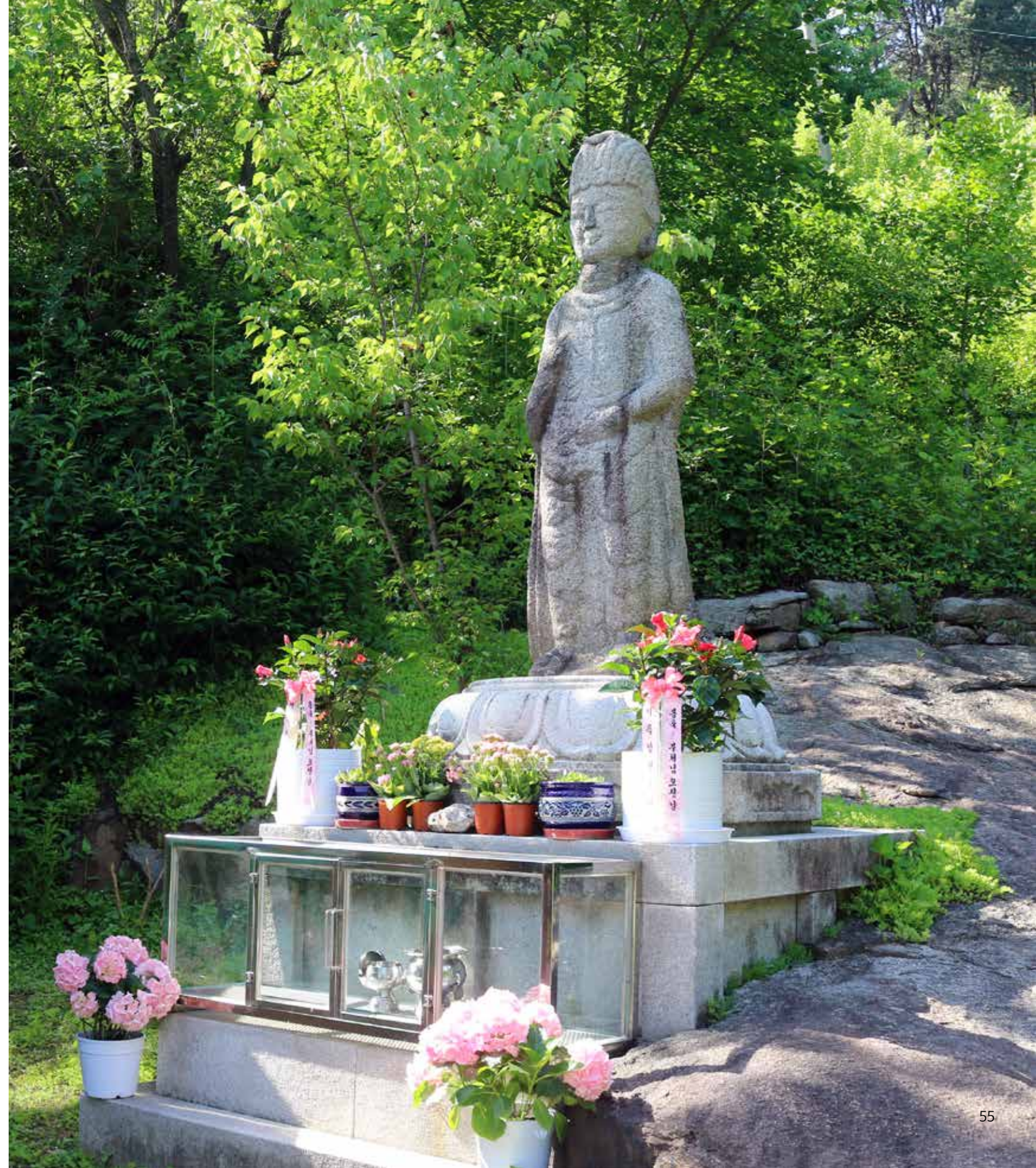
봉황의 산에서 원주를 보다

봉산동 석조보살입상 原州鳳山洞石造菩薩立像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 1982.11.03. 지정
봉산2길

봉산동 석조보살입상은 천왕사지(天王寺址)에서 발견되었다는 구전(口傳)이 전하고 있으나 사지(寺址)에 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현재 이 석조보살입상은 근래에 조성된 사찰인 미륵암 마당에 세워져 있다. 봉산동 석조보살입상은 1.78m의 높이로 당당한 모습이다.

친근감 있는 방형의 얼굴, 도식적인 신체, 형식화된 군의주름 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전기에 제작된 지방색이 농후한 작품이라고 한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으며, 풍만한 얼굴에 눈·코·입은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미소를 띠고 있어 친근한 인상이다.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왼손은 배에 대고 있으며, 신체에 비해 팔은 가늘고 손이 작아서 불균형한 모습이다. 상체의 옷은 양복처럼 보이고, 큰 체구에 구름무늬 같은 하체의 옷주름이나 머리에 쓴 관 모양이 일반적인 보살과 거리가 먼 특이한 형태이다. 옷이나 신체 등 형식적인 세부표현에서 고려 보살상의 특징과 지방색이 어우러져 있는 작품으로, 이 지방의 불상양식을 알 수 있다.





원주시역사박물관

원주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만나는 원주 대표 문화시설

원주시 봉산로 134

원주시역사박물관은 1993년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이후, 2000년 11월 현 위치에 개관했다. 원주시역사박물관은 평원, 복원경, 강원감영으로 이어지는 원주의 역사와 오늘의 원주가 있기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시립박물관이다. 원주시의 지나온 다양한 발자취와 지역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열린 박물관, 함께 참여하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원주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문화기관이다.

원주시역사박물관 033)737-4371



역사·문화

통제의 시대, 암울했던 시절,
무위당 선생을 만나러 오는 길목

옛 봉산2동 파출소

1980~2011 운영

천주교 봉산동성당 건너편에 있던 옛 봉산2동 파출소는 권력기관에서 선생의 집을 찾아오는 이들의 행적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파출소 였다. 지금은 봉산동 지구대로 통합되었으며 건물은 카페로 사용되고 있다. 선생이 주로 다녔던 길이 원주천 독방길이라면 이 골목길은 선생을 찾는 이들이 주로 왕래했던 길이였다.

통제의 시대, 암울했던 시절, 많은 이들이 선생을 만나러 이 길을 지나갔다.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평범한 회사원, 시민들까지 시대의 질곡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던 이들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 이 좁은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지나 선생님을 찾았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시국을 논하고 술잔을 넘기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한줄기 생명을 마음에 품고 돌아갔다. 몸 숙이고 이 길을 지나는 그들을 지켜보는 감시의 눈빛 마저도 존경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무위당 길 건너 옛 봉산2동 파출소



옛 봉산2동 파출소 2009



봉산동 성당

토담집과 헛간을 성전으로 시작한 성당

1972년 5월 26일 봉산동본당 분리 설정
초대 주임 신현봉(안토니오) 신부 부임

1972년 5월 26일 원동본당에서는 원주천(봉산천)을 경계로 봉산동본당을 분리하였다. 봉산동본당의 관할 구역 중심에는 현재와 같이 중앙선 철도가 원주역에서 봉산천을 지나 봉산(鳳山) 마을을 통과하고 있다. 철로 변에 위치하는 봉산1·2동에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반곡동, 행구동, 소초면 일대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봉산동 본당은 원동에서 봉산1·2동, 학성동본당에서 태장1동, 단구동에서 행구동을 이관 받았으며, 그 외에 판부면 봉대, 입춘내, 서리실, 영랭이(영랑) 등을 관할로 설립되었다.

봉산동본당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2년 학교를 설립하려던 땅이 성당 부지로 마련되었을 뿐 교우 양승학(베드로)에게서 기증 받은 허름한 토담집과 그에 딸린 헛간이 전부였다. 1972년 6월 9일, 초대 주임으로 신현봉(안토니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신 신부는 부임하자마자 헛간은 임시 성전으로, 토담집은 사제관으로 손질하였다. 봉산동본당은 10월 19일, 사목위

원회 위원과 구역장, 반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간단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봉산동본당 창설 첫 미사를 10월 29일 오후 2시에 교구 상서국장 양대석 신부, 원동 이영섭 신부, 신현봉 신부의 집전으로 원동, 학성동, 단구동본당 교우 200여 명이 모여 봉헌하였다. 봉산동본당에 이관한 교우 수는 남자 484명, 여자 614명으로 통 1,098명이다.

봉산동본당 첫 미사가 있은 후 본당 11월 5일자 주보에 “봉산동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지난 주일 원주에 또 하나의 주님의 성전이 탄생되었다. 77년의 역사를 지닌 원동 본당에서 5번째로 새로운 본당을 창설하고, 원주교구에서는 22번째로 봉산동에 본당이 설립된 것이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탄생되었지만 성전도 없고, 초라한 초가집과 창고가 전부인 것이다. 초창기 교회가 그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 초가집에서 성전을 꾸미고 미사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만 초창기의 교우들과 같이 단결하여 성전을 꾸미고 복음선포에 노력한 것이 현세대에도 얼마나 교우들이 단합이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든다. 과거에는 외국 원조에 의하여 성전을 꾸미고 훌륭한 집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교우들에게는 아무 부담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초창기와 같이 우리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훌륭하게 성전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단합하느냐 하는 마음에서 5번째로 탄생된 우리 형제의 성전을 훌륭하게 꾸며지고, 원주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등불이 될 것이다. 다같이 봉산동성전을 훌륭하게 꾸미도록 노력하자. 봉산동 교우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다.」

자료출처 : 「원동 100년사」 1999년 천주교 원주교구 원동교회



1972년 봉산동본당 건립미사
(사진 : 원동100년사 1999)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마지막 미사를 보셨던 곳

장일순은 1994년 5월 22일, “내 이름으로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67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장례 미사가 거행됐던 천주교 봉산동성당에는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수가 3천여 명에 달했다 한다.

원주경찰서

봉산동 봉산로 1

1945. 10. 21 원주경찰서 설립
1964. 11. 26 봉산동으로 청사 신축 이전 (봉산로1)
1998. 06. 26 원주경찰서 신청사 준공

원주경찰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치안 활동으로 ‘안전하고 법질서가 확립된 원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중심의 배려와 봉사치안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봉산동 원주경찰서 1973



원주옷문화센터

봉산동 봉산로 20

원주초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한 원주옷문화센터는 옛 1959년 원주교육청으로 지어지고, 1985년 평생교육정보관(원주도서관)으로 건축, 사용되었던 지상 3층의 건축물이다. 원주 옷문화센터는 원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옷칠공예기술의 전승과 옷칠공예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 개관했다. 센터에는 전시관, 판매장, 박물관, 공방, 옷칠공예교실 등 옷 관련 테마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원주시 교육청 1959



원주초등학교에서 바라 본 원주교육청 1960년대



원주옷문화센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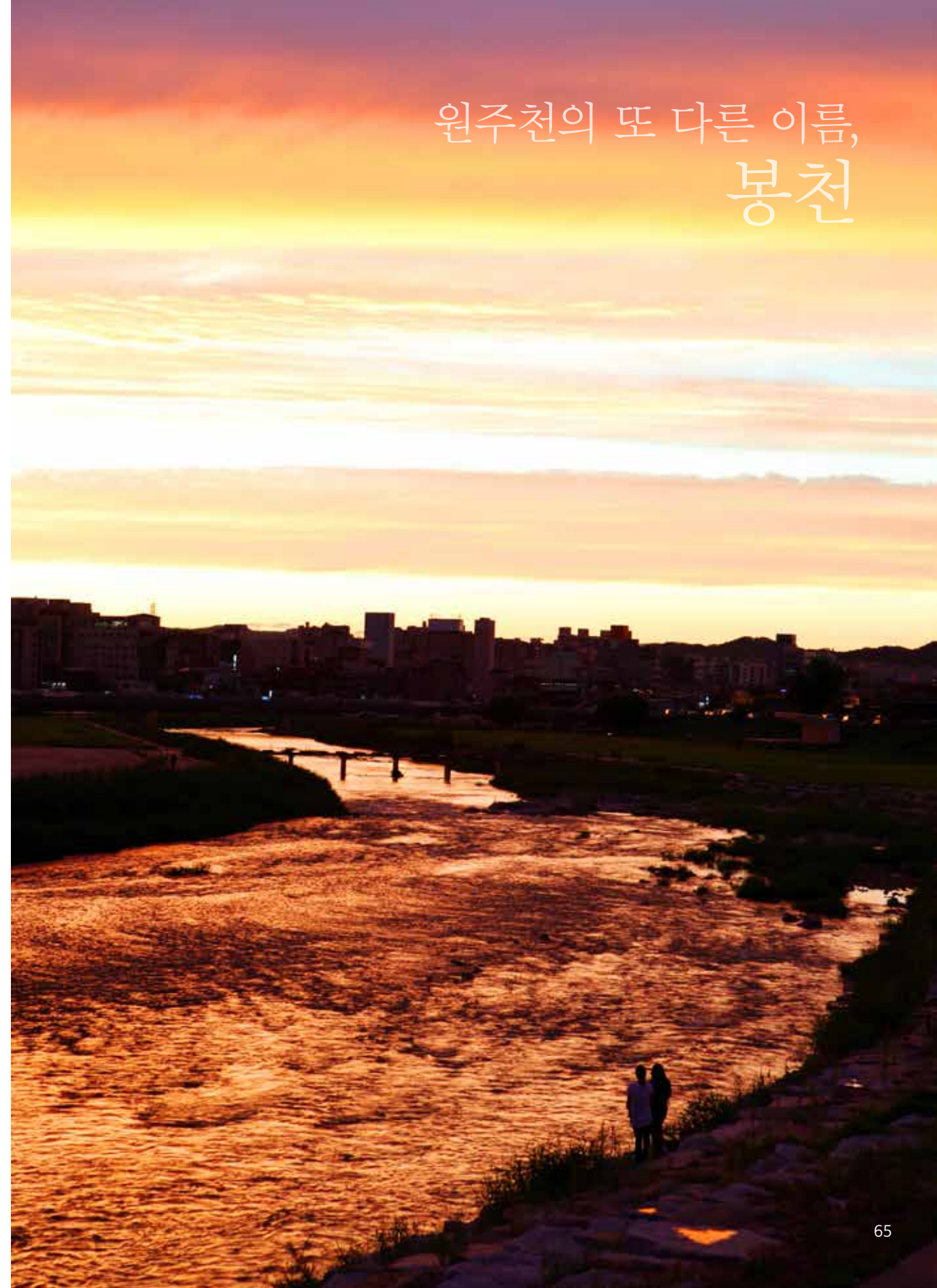
원주천과 원주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치악산 남대봉에서 시작하여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원주천 또는 봉천, 봉산천이라고도 부른다. 원주 시가지를 가로질러 중앙고속도로 호저대교 밑을 지나 호저면 주산리에서 섬강에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흐른다. 원주의 옛 시가지는 봉산동 지역으로 봉산동 앞을 흘러서 봉천내라 불렸다. 원주의 동쪽을 흐른다고 해서 동천(東川)이라고도 불렸다. 영랑천(화천)과 합치는 치악교 위쪽까지를 봉천, 봉산천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쪽인 봉산동 앞부터는 원주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원주천과 원주교

원주천의 또 다른 이름,
봉천





원주천의 배말과 배부른산

봉산동에는 옛날에 원주천에 소금배가 들어왔다는 ‘배말’이라는 지명이 있다. 지금의 배말타운아파트 주변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배가 들어왔다고 전해오지만 본 사람은 없다. 그 만큼 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한다. 봉산에서 바라보면 멀리 무실동쪽으로 ‘배부른산’이 보인다. 원주시 지명유래에는 배부른산의 또 다른 유래로 원주천에 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른면 남한강의 조선시대 조창(물류기지)인 흥원창을 향해 배를 부르는 신호를 보냈다 해서 ‘배부른산’이라 불렀다고 적혀있다.

원주천과 쌍다리의 추억

양한모 문화관광해설사

원주 제1교라 부르는 원주교, 원주천을 동서로 이어주는 다리로 시민들에게는 쌍다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차가 다닌 도로와 사람들만 걸어 다닐수 있는 좁은 인도교가 나란히 놓여 있기에 쌍다리라 부른다. 봉천교라 부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다리였는데 한국전쟁으로 폭격을 맞아 임시 나무다리로 해 놓았다가 새로 건설했다. 다리가 없으니 여름에 큰비가 오면 가방에 교복을 넣고 원주천을 걸어서 건너 다녔다. 하천에 제방도 없고 그랬을 때는 형들 따라 개울에서 나무같은 것을 주워서 고구마나 감자도 구워 먹고 했다.

봉산동은 원주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다. 옛날 원주읍 상동리와 하동리의 원천이다. 그래서 봉산동의 이름을 따서 봉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원주천은 원주시민들이 먹고 씻고 놀았던 삶의 원천이다. 아마 그 물에 몸과 마음을 적시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며 지금도 원주천은 나의 한 부분처럼 느껴진다.”



역사·문화

학봉정



기록으로 복원된 학봉정 鶴鳳亭

봉산동 학봉정길

봉산동은 봉황의 날개처럼 여러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봉황이 마을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태장1동과 경계하고 있는 봉산동의 북쪽 끝 봉산미(鳳山尾) 정상에 있는 2층 누각의 학봉정(鶴鳳亭)은 1991년에 복원된 정자로 원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학봉정 건립에 대한 기록은 1941년 ‘강원도지’ 원주군 편에 수록되기 2년 전인 1939년(소화 14년, 기묘) 4월에 원주공원 내에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건 참여자 명단’에는 당시 이필국(李弼國) 군수와 우도정태(牛島正太) 서장, 홍의식(洪義植) 읍장의 이름이 쓰여있다. 학봉정의 조성 감독을 맡은 이는 주사(主事) 손창관(孫昌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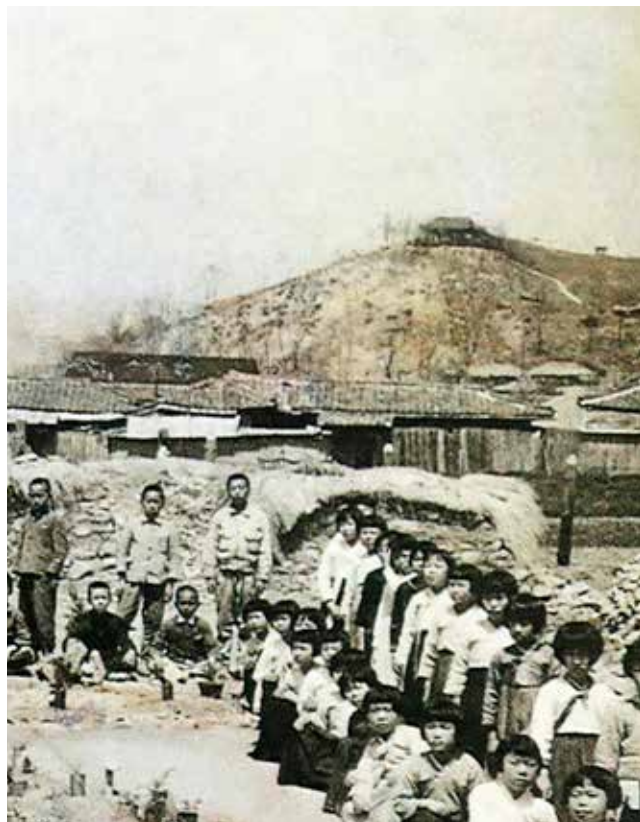
1991년 학봉정을 새로 지으면서 손창관의 후손들이 세운 ‘학봉정복원기념비’에는 1939년 건립 당시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복원기념비에는 「옛부터 원주에는 봉산(鳳山)이 유명하여 인재가 많이 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인들이 혈을 잘라 맥을 끊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원주민은 봉산의 기운을 다시 살리기 위해 봉살미에 정자를 세우고 뜻을 모으자 민족의 정기를 회생시키자는 큰 뜻에 감동한 손창관(孫昌寬, 1863 -1951)옹이 건립기금 일체를 부담하여 정자를 짓고 학봉정이라고 하였다. 그 후 원주 시목객의 모임인 설미회(雪眉會)의 고로(古老)들이 모여 시를 읊고 독립투쟁을 의논함에 일본 경찰이 수상히 여겨 정자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자 학봉정은 관리 소홀로 퇴락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 소실되었다」라고 쓰여 있다.」

1991년 학봉정 복원 당시 제작되어 지금도 걸려있는 현판은 원주 출신의 최규하 대통령(1919-2006)의 글을 받아 각자를 했다. 정갈하고 단정한 해서체의 ‘鶴鳳亭’으로 1991년 9월에 완성하였다고 기록하고 玄石(현석)을 호로 쓴 최규하 대통령의 낙관이 있다. 2018년 8월 원주역사박물관은 2001년 박물관에 기증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학봉정 사진’과 ‘설미아회 사진’을 중심으로 학봉정에 대한 기억의 복원과 기록의 발굴 행사를 개최했다.

자료 출처 : 봉산을 품은 학봉정 이야기, 원주역사박물관 2018



학봉정 앞, 기념촬영(맨 앞 갓 쓴 분이 손창관)
사진 : 봉산을 품은 학봉정 이야기, 원주역사박물관 2018



1949년 원주초등학교에서 바라본 봉산의 학봉정 모습(우측)



역사·문화

자유·사랑·정의·평화를
추구하는 가톨릭공동체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실천중심, 소통중심, 나눔중심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한다

1990년 개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은 인간 삶의 기본 가치인 자유·사랑·정의·평화를 추구하는 설립이념으로 1990년 봉산동에 개관했다.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돕는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사회 복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990 11월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개관(초대관장 최기식 신부)
- 1997 9월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개소
- 2000 9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2001 10월 복지관 증축 준공
- 2008 1월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
- 2013 1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2015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식
제1회 원주아동뮤직페스티벌 '악동 날다' 개최
- 2016 1월 희망플랜 원주센터 사업 선정
- 2017 1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선정
- 2018 9월 제1회 우물시장 골목영화제 개최
제4회 원주아동뮤직페스티벌 '악동 날다' 개최

후생주택

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에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서민들을 위한 후생주택이 전국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봉산동 우물시장 뒤편에도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지은 후생주택이 30가구 정도가 건립되었다. 봉산동 우물시장에 지은 후생주택도 지금은 새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남아있는 주택 중에 행복마트 삼거리에 있는 집이 그나마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안쪽 골목에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집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전에는 후생주택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실제로 건축자재 배급에 있어서 당시 돈 2만원의 보증금과 지방유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서민들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걸어서 대부분 유지들이나 공공기관에 근무자들이 많이 입주해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할머니집



나눔과 돌봄의 이웃공동체, 봉산동할머니집

봉산동 우물시장길

봉산동할머니집은 1999년 갈거리사랑촌(현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공동체 임대지원 사업이다. 할머니집은 우물시장길 골목에 마련된 주택으로 저소득층 홀몸 노인들이 모여 사는 돌봄 공동체로 현재 5명의 할머니들이 입주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지역의 사회적 조직들이 협력해 노후된 공간의 전반적인 보수와 복지 지원을 위한 사랑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을 주민과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공동 거실을 마련하고 건강,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무위당 장일순

나락 한알 속에 우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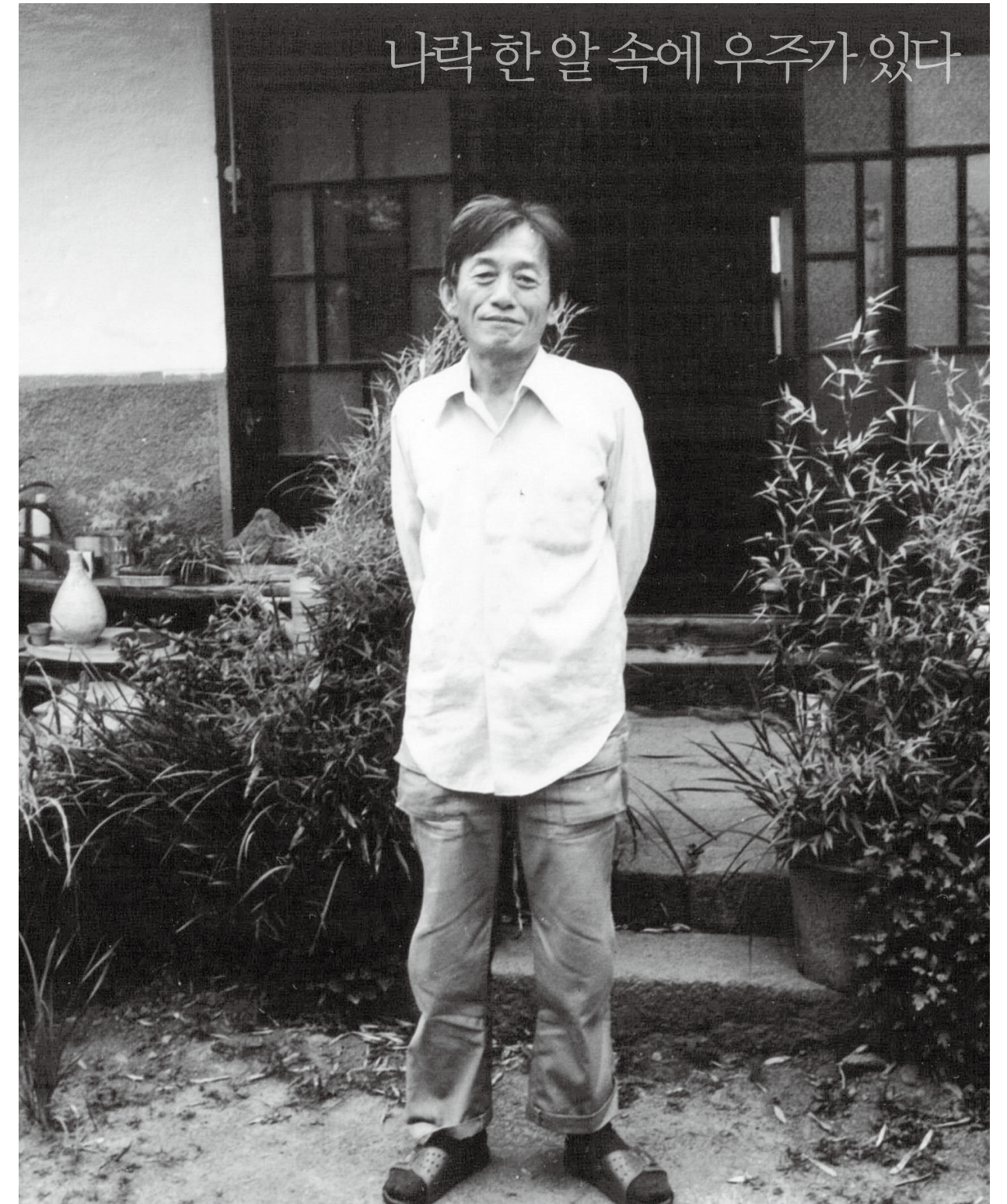
무위당 장일순[張壹淳 1928.9.3. ~ 1994.5.22.]

사회운동가·교육자·생명사상가

1928년 10월 16일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에서 부친 장복흥(張福興)과 모친 김복희(金福姬)사이에서 6남매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호(號)는 호암(湖岩)이었으나, 60년대에는 청강(靑江)으로, 70년대에는 무위당(無爲堂)으로, 80년대에는 일숙자(一粟子)로 바꾸어 사용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여운(旅雲) 장경호(張慶浩) 밑에서 한학을 익히는 한편 생명 공경의 자세를 배웠다. 묵객으로 할아버지와 절친하던 우국지사 차강(此江) 박기정(朴基正)에게서 서화를 익혔다.

1940년 원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천주교 원동성당에서 세례명 요한으로 영세를 받고 서울로 유학을 떠났다. 1948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뒤에는 고향인 원주로 귀향해서 줄곧 생활했다. 1954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원의 맥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대성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 5년간 봉직하였다. 1955년 봉산동에 형제들과 손수 토담집을 지어 서 살면서 1957년에는 이인숙(李仁淑)과 결혼, 슬하에 3남을 두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5·16군사 쿠데타 직후 평소 주창하던 '중립화 평화통일론'으로 인해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와 춘천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63년 출소 후 다시 대성학원 이사장에 복귀하였으나 한일 굴욕외교 반대운동에 연루되어 이사장직을 박탈 당하고 '정치활동 정화법'과 '사회안전법'에 묶여 군사정권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자택 앞마당에서



무위당 장례식 1994년 5월 22일



소초면 수암리 무위당 묘소



▼ 무위당 선생과 아내 이인숙 1989년 10월 24일



봉산동 자택 1981



1968년 천주교 원주교구장인 지학순(池學淳), 시인 김지하(金芝河) 등과 함께 강원도 일대의 농촌·광산 지역을 돌며 농민·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71년 10월에는 지학순 주교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사회정의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주도하여 7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촉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73년 여름에 닦친 큰 홍수로 수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지학순 주교와 함께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된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 당시 로마에서 주교회의를 마치고 일본을 경유해 귀국을 준비하던 지학순 주교와 함께 국제사회에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다.

“해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든 어린아이든 그 행동이나 말이 올바르면 나의 선생님이다’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바탕이자,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들플 한 포기에도 존경을 바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983년에는 원주의 ‘한살림’을 창립하고 호를 ‘한 알의 작은 줍쌀’이라는 뜻의 일숙자로 바꾸고 본격적인 생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원주시 호저면 송곡(松谷)에 비문을 쓰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1994년 5월 22일 봉산동 자택에서 67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다.

장일순은 유학·노장사상에도 조예가 깊었고, 특히 최시형(崔時亨)의 사상과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아 일명 ‘깁는 동학(東學)’으로 통하였다. 서예에도 뛰어났는데, 1988년 한살림운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개인전을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작품을 파는 법이 없었다. 서화 가운데서도 특히 난초를 잘 그렸고, 만년에는 난초 그림에 사람의 얼굴을 담아내는 ‘얼굴 난초’로 잘 알려져 있다.



민공호 의병장



관동창의대장 민공호(閔肯鎬 1865-1908) 묘소
학봉정길, 봉산동 산 1011번지

“내가 일제에 투항하면 일제 치하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부귀(富貴)가 8역적(逆賊)과 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국권을 빼앗기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 때에
나의 뜻은 나라의 독립을 찾는 데 있으므로
일제와 싸워서 설혹 이기지 못해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영혼이 삼천리 망망대해를 떠돌게 될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¹

강원도 의병 중 가장 큰 활약을 보인 사람은 단연 민공호다. 그는 서울 출생으로 1897년 33세의 나이에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의 정교(正校)를 지내고, 뒤에 춘천분견대에 전입, 1901년 특무정교(부사관의 원사에 해당)가 되고 원주 진위대(중앙군은 친위대, 지방군은 진위대)로 전입했다. 민공호는 기골이 장대하고 지도력과 인품이 강직하여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원주 진위대는 지방에 있던 8개 진위대 중 하나로 전체 병력은 600명 정도였다.

1 명성황후기념관 소장 유물 중 민공호(閔肯鎬) 의병장의 공한(公翰, 공적인 편지). 일제의 강제합방 직전, 황철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두 번씩이나 회유문을 받았으나 거절한 민공호의 결연한 의지의 답서를 정리한 내용



1907년 8월 5일, 마침 원주 진위대장 홍유형(洪裕馨)이 상경하여 부재중일 때, 충주 수비대 이궁(二宮) 소위 등 19명이 원주 수비대를 해산하기 위하여 온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에 그는, “나라에 병사가 없으면 무엇으로써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군대를 거두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하고, 부하에게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 약 삼백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원주 우편 취급소를 습격하고 일본 경찰을 습격하였다. 이때 순경들이 남산을 넘어 충주로(忠州路)로 퇴각하므로 추격하다가 이궁(二宮) 소위들을 만나 세 시간을 격전하였다.

그 후 민공호는 의병부대를 많은 소단위의 의병부대로 편성하였다. 이들 소의병부대는 제천, 죽산, 장호원, 여주, 홍천 등지 일대에서 유격전으로 적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활약하였다. 8월 5일의 민공호의 봉기 사실을 보고 받은 일본 사령부는 경성 주재 보병 제47연대 소속의 2개 중대와 기관총 4정, 공병 1개 소대로 편성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일본군은 8월 10일 원주에 도착하여 의병 진압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들은 중앙에 다음과 같은 보고문을 올렸다. “지형을 잘 아는 토민의 비호를 받고 있는 폭도의 첩보 근무는 대단히 민활하여 교묘하게 우리 행동을 정탐하여 은현출몰(隱現出沒)하므로, 지대는 원주 도착 후 그 부근의 소탕에 노력하였으나, 수일간 조금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때 지방민들이 의병들과 협력하여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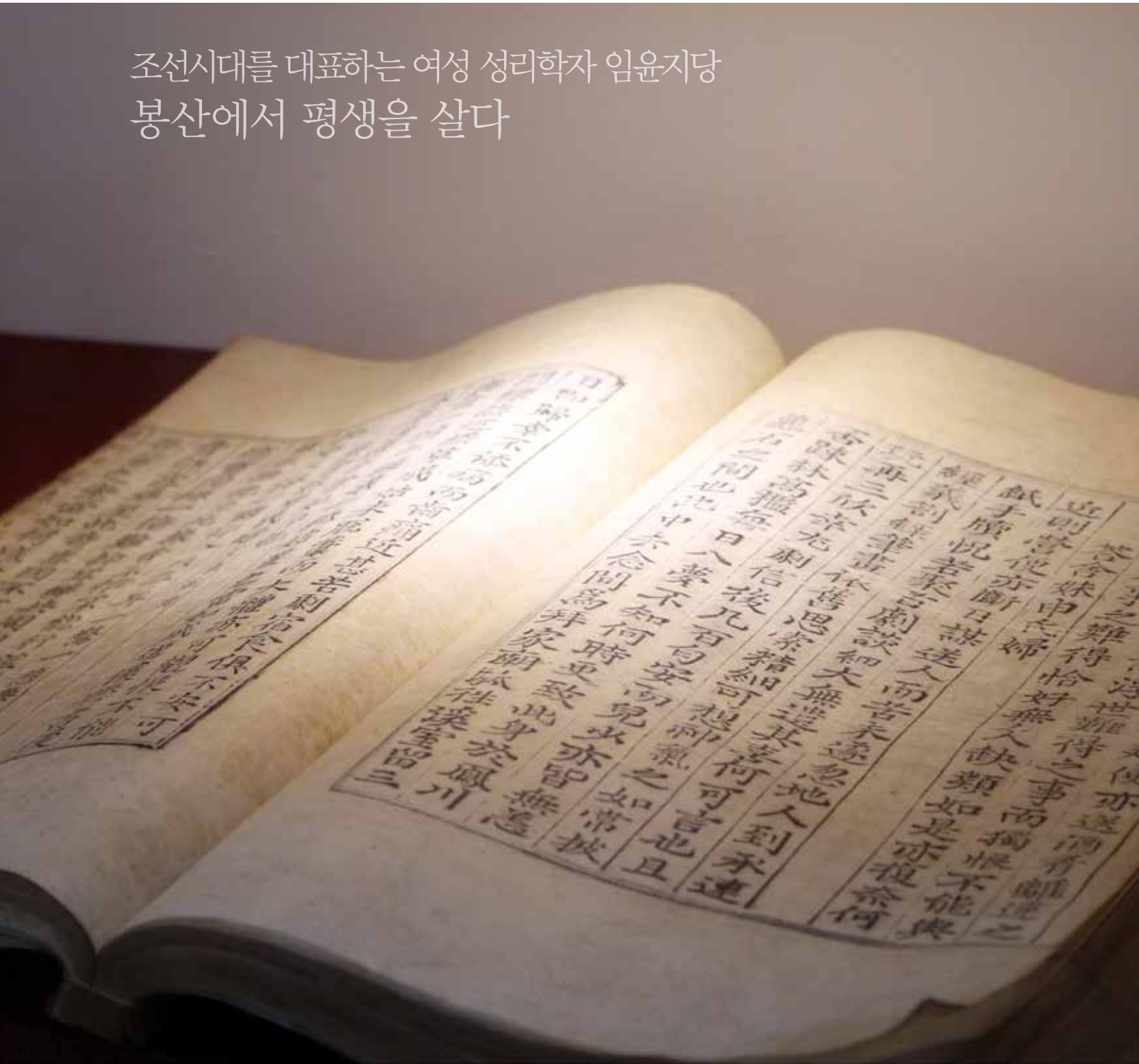
당시 지식인 황현은 <매천야록>²에서 “강원도에 의병이 불길처럼 일어 군수가 달아나 관청을 비운 곳이 19군(郡)에 이른다”고 말했다.

민공호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의병의 신화적인 활약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다. 민공호 대장이 거느린 의병부대는 당시 강원도 일대에서는 가장 세력이 큰 의병부대로 강원도·충청도·경상도로 전전하면서 모두 100여회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민공호 부대는 1908년 2월 29일 강원도 박달치(횡성군 강림면) 전투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으나 의병 20여 명이 사살되고, 그는 사로잡혀 강림으로 호송되었다. 그날 밤 부하 60여 명이 민공호 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강림의 일본군 진영을 습격하였으나 교전 중 44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다.

현재 봉산동에 조성되어 있는 ‘관동창의대장 민공호 묘소’는 1939년 원주시(원성군) 흥업면 무실동(무실리)로 이장하였고, 1954년 5월 권준 육군준장이 현 위치로 이전했다고 한다. 그가 전사한 횡성군 강림면에는 그의 의병활동을 기리는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자료: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2 조선 말기 황현(黃玼)이 1864년(고종 1)부터 1910년까지 4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비사(史)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
봉산에서 평생을 살다

인물

임윤지당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

봉산동 임윤지당길

‘남성과 여성은 현실에 처한 입장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그 가치에 우열이 없다’

임윤지당은 조선 후기 봉산동에 살았던 여성 성리학자로 풍천(豐川) 임씨 집안의 5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임윤지당은 1739년 19살 되던 해 원주의 명문가인 평산 신씨 집안의 신광유(申光裕, 1722-1747)에게 시집와서 1793년(정조17) 작고할 때까지 55년간 원주에서 살았다.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평산 신씨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통해 임윤지당이 살았던 마을은 ‘봉천(鳳川)’ 구석(龜石)으로, 현재의 봉산동 당간지주 인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결혼한 지 8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임윤지당의 개인적인 삶은 대단히 불행했다. 난산 끝에 낳은 아이도 일찍 죽어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삶을 겪으면서도 학문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임윤지당은 심성의 수련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저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원주에서 집필되었다. 따라서 임윤지당은 원주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높은 학문과 도덕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감동을 주었고 널리 칭송을 받았다. 조선이라는 시대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임윤지당이 당시에 성리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리학의 대가였던 오빠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역할이 컸다. 임윤지당은 9세 때부터 오빠 임성주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학습하고 성리학의 기초를 배웠다.

도덕적 가치를 철저히 지킨 지행합일과 언행일치의 실천가

임윤지당의 학문적 업적은 크게 유교 경전 연구, 성리학 연구, 중국역사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모두 임윤지당의 문집인 ‘윤지당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임윤지당의 학문은 율곡 이이-사계 김장생-우암 송시열-수암 권상하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당시까지 축적되었던 조선 성리학의 높은 수준을 깊이 이해하였으며, 독창적이고 명쾌한 식견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독특한 학문체계를 수립하였다.

임윤지당은 원주가 낳은 위인으로 원주 시민들이 존경하고 자랑해야 할 조상이다. 또 우리 여성사(女性史) 제1의 인물이다. 강릉의 신사임당(申師任堂)과 비교하여 못할 분이 아니다. 현대는 남녀평등의 시대이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여성사에서 임윤지당의 위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퇴계나 율곡과 같은 존재이다. 원주시민들은 고장의 위대한 선각자요 대학자인 임윤지당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널리 선양해야 할 것이다.



임윤지당 기념비 제막식, 봉산동 배말 2008



임윤지당이 평산 신씨택에 시집와서 살았던 봉산동 구석정 (사진 : 원주학술총서 임윤지당 2018 원주시역사박물관)



임윤지당 선양관



임윤지당길

봉산동 새마을공원 임윤지당 기념비 이전 2016. 05. 14

원주시에서는 1999년 원주 여성인물 선양사업으로 봉산동 새마을공원에 임윤지당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비를 조각한 박광필 조각가는 제작의도에서 ‘남과 여, 음과 양, 강함과 부드러움 등을 비대칭의 구조속에 조화로움으로 표현하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임윤지당의 상호보완적 존재나 가치를 표현했다’ 고 설명하고 있다. 2015년에는 원주시 단구동 여성가족공원 내에 임윤지당 선양관을 건립하고 이듬해인 2016년에 봉산동에 있던 임윤지당 기념비를 선양관 앞뜰로 이전했다.

임윤지당 선양관

원주시 단관길 53-1 / 관람문의 033)737-4701



단구동 임윤지당 선양관

비로봉 돌탑 용창중

용창중(?~1974)

봉산동 우물시장길

신성한 탑을 쌓기 위해 산을 오르다

해발 1,288m의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 10m 높이로 3기의 돌탑, 산신탑(중앙), 용왕탑(남쪽), 칠성탑(북쪽)을 쌓은 사람은 봉산동의 용창중 씨다, 다른 이름으로 용진수로도 알려져 있다. 용창중씨는 봉산동 우물시장에 살면서 삼광택지에서 아내와 함께 모나카¹라는 찹쌀과자 장사를 했다. 용씨는 주로 배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용창중씨는 어느날 꿈속에서 치악산 정상에 3도(道)가 보이는 곳에 3기의 돌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1962년 9월부터 돌을 지고 산을 올라 탑을 쌓기 시작했다. 치악산에 한번 올라가면 2~3일씩 있다가 내려왔다. 산에서는 구할 수 없는 원주와 경계한 삼도의 강에서 주운 돌을 돌탑 사이사이에 쌓은 것이다. 신신탑, 용왕탑, 칠성탑이라 이름 붙인 것을 봐서 민속적 신앙심에서 시작된 것 같다. 돌탑을 쌓기 위해 산을 오를 때는 아내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으며 비로봉 아래 약수터 움막까지 쌀을 가져온 아내를 밤이 늦었어도 재우지 않고 내려보냈다 한다. 어찌 보면 삶의 운명으로 여기고 신의 계시를 숭고하게 실천한 것이다.

1964년 5층으로 된 3기의 돌탑을 모두 쌓았으나 1967년과 1972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진 것을 용창중씨가 다시 복원했다. 그 후 현재까지도 여러번 무너진 것을 치악산국립공원에서 복원해 오고 있다. 삼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돌을 모아 10m이상 되는 거대한 돌탑을 쌓은 용창중씨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평범한 시민, 용창중씨의 노력과 정성이 만든 비로봉 돌탑은 치악산의 대명사이자 원주의 상징으로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

1 모나카는 찹쌀 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한 것을 찐 후, 얇게 늘려서 원 모양으로 자른 것을 굽고, 마무리에 설탕을 넣는 일본에서 건너온 과자이다.

보은의 전설과 시대의 사연을 품은 신들의 산

치악산의 높이를 10m 더 높다



미륵불탑을 쌓고 찍은 용창중씨의 어머니 1964



용왕탑을 쌓고 있는 용창중씨 1964

비운의 복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지용주

인물

권투선수 지용주



멕시코시티 올림픽 복싱 라이트플라이급 결승전
베네수엘라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와의 접전 장면 1968
©대한체육회

지용주(池龍珠, 1948-1985)

봉산동

원주 복싱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원주 체육을 대표해 온 종목이었다. 1962년 원주중학교에 복싱부가 창단되고 1963년부터 강원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1948년 원주시 중평동에서 태어난 지용주 선수는 1961년 원주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65년 5월 춘천에서 개최된 제1회 강원도학도체육대회 플라이급에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며 복싱선수로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다.

1967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지용주 선수와 라이벌이었던 박종목 선수는 1967년 제48회 전국체전 일반부 플라이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원주 복싱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두 선수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대회 라이트 플라이급 최종 선발전 4강에 올랐으나 마지막 순간에 박종목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지용주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했다. 1968년 10월 28일에 열린 제19회 멕시코올림픽 복싱 라이트플라이급 결승전에서 베네수엘라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에게 2-3으로 판정패해 은메달을 획득, 원주를 복싱의 도시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0년에는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플라이급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은퇴 후 1977년 부터 모교인 대성고등학교에서 지도자 활동을 했고 1979년에는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다. 1985년 고향 원주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사망했다. 1999년 원주종합운동장 체육공원에 지용주의 흉상이 건립됐다.

지용주 기념상

지용주(池龍珠) 선수는 1948년 10월 28일 원주 중평동에서 태어났다. 원주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원주중학교에 복싱부를 창단한 원주중학교에 입학하여 1965년 5월 춘천에서 개최된 제1회 강원도학도체육대회 플라이급에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며 복싱선수로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다. 1967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지용주 선수는 1967년 제48회 전국체전 일반부 플라이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원주 복싱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두 선수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대회 라이트 플라이급 최종 선발전 4강에 올랐으나 마지막 순간에 박종목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지용주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했다. 1968년 10월 28일에 열린 제19회 멕시코올림픽 복싱 라이트플라이급 결승전에서 베네수엘라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에게 2-3으로 판정패해 은메달을 획득, 원주를 복싱의 도시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0년에는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플라이급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은퇴 후 1977년부터 모교인 대성고등학교에서 지도자 활동을 했고 1979년에는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다. 1985년 고향 원주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사망했다. 1999년 원주종합운동장 체육공원에 지용주의 흉상이 건립됐다.

1999년 10월 15일



지용주 선수 멕시코올림픽 은메달 환영 시가행진 1968



지용주 선수 환영 카퍼레이드 1970



원주 대성중학교 복싱코치 시절(가운데) 1977



제4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박형춘(금) 지용주(은) 선수 환영식

1948년 12월 19일생, 원주시 중평동 278

1961년 원주초등학교 졸업

1967년 원주대성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입학

1965년 일본 노기나와 아시아 고교생 선수권대회 금메달

1968년 제19회 멕시코시티 올림픽 복싱 라이트플라이급 은메달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 플라이급 금메달

1970년 국민훈장 석류장

1979년 국가대표 코치

1985년 사망

1999년 지용주 선수 기념홍상 건립_원주종합운동장

‘시대적 인물로 만들어진 원주의 빛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친구 지용주 선수는 한국 최초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우리나라 복싱의 불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지용주 선수는 당간지주가 있는 봉산동 비석거리에 살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친구로 기억된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집안 모두 운동을 좋아했으니 아마 피를 타고난 듯 했다. 지용주 선수는 중학교 3학년 부터 복싱체육관을 다니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올림픽 은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가대표 코치까지 지냈지만 불의의 사고로 한 순간에 떠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용주 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 우발적 사고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것보다 피해자인 지용주 선수에 대한 오해가 더 큰 상처를 만들어 냈다.”

“시대적 인물이었던 원주의 빛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원주에서 태어나고 봉산동에 살았던 원주의 인물, 지용주 선수를 다시 정리하고 재조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원주초등학교 50회 동창생 양한모 씨



청렴의 지도자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봉산동 삼광마을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최규하(崔圭夏 1919-2006)

1999년 원주시역사박물관 건립과 함께 옛 집터 복원

2008년 최규하 대통령 유허비(遺墟碑)¹ 건립



대한민국 10대 대통령을 지낸 최규하 대통령은 1919년 7월 원주시 평원동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강릉이며, 호는 현석(玄石)이다. 최규하 대통령은 3살 때인 1921년부터 1932년까지 어린시절을 봉산동 삼광마을에서 보내며 원주공립보통학교(현 원주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도쿄사범대와 만주 국립대동학원을 졸업하고 1945년 경성사범대학(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19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1951년 외무부 통상국장으로 발탁되면서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967년에는 외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76년 국무총리로 취임하였으며 1979년 12월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부 실권하의 대통령으로 재임하다 1980년 8월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평생을 울곧고 청빈하게 지내다가 2006년 10월 향년 88세의 일기로 서거, 10월 26일 ‘국민장’으로 거행되어 국립대천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되었다.

사진 : 대통령기록관

1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



최규하 대통령 내외분의 청와대 산책 1980



최규하 대통령 내외분의 청와대 산책 1980

최규하의 <나의 어린 시절> 중에서

“3·1운동은 비록 일본의 비인도적인 탄압 앞에 즉각적인 독립 쟁취에는 실패하였으나, 해외로는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만주 등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불러오고, 국내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무단정치에서 소위 문화정치로 표방된 유화정책으로, 제한된 여건이긴 하지만 민족문화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는 일단 성공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태어난 해인 기미년은 ‘대한민국 원년’이기도 하다.”

최규하 대통령은 3살 때인 1921년부터 1932년 경성제일고보에 유학하기 전까지 봉산동 삼광택지 옛 집에서에서 원주보통학교(원주초등학교)를 다녔다. 어린 시절 살았던 옛집은 한국전쟁으로 불타 없어지고 그 후에 지은 집이다.

자료: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청림의 지도자 최규하’ 원주시역사박물관 2019



원주공립보통학교 20회 졸업사진, 원안에 있는 학생이 최규하 대통령 1931 (사진 : 원주초등학교 백년관)



봉산동 옛 집터 1988 (사진 : 청림의 지도자 최규하 2019 원주시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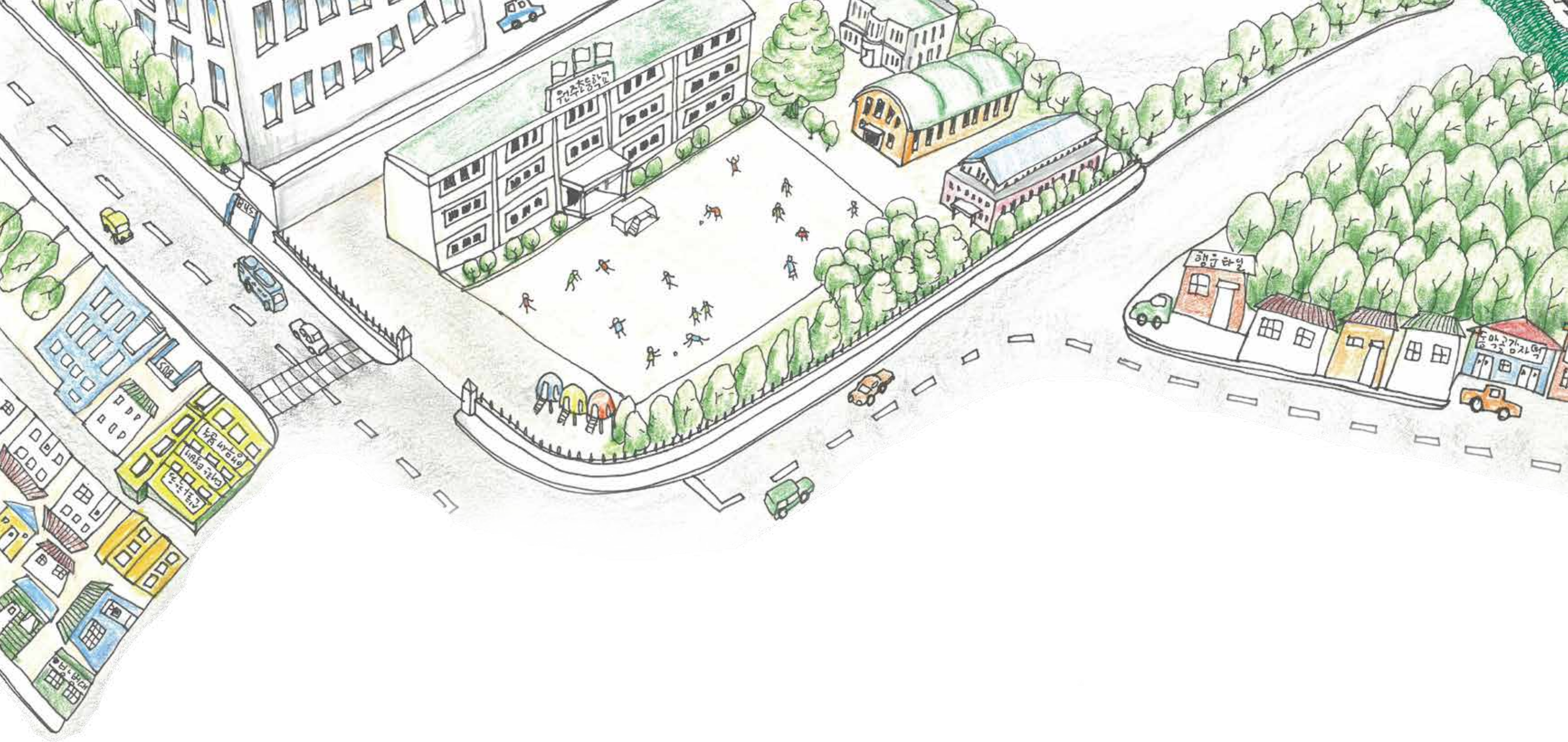


원주초등학교 대통령기념관



원주시역사박물관 최규하대통령 옛집에 있는 대통령유허비





기억을 소환하는 일은 커커이 쌓인 마을의 삶과 문화를 읽고,
역사를 들여다보는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봉황이 품은 사람들

어머니의 마을

봉황이 품은 섬김의 마을,
어머니의 삶에는 이야기의 나이트가 지문처럼 남아 있다.

봉산 마을의 기억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난 섬김의 이야기는 마을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상의 관계를 확인하는 공동체의 재발견이다. 전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 유가족을 위한 전쟁미망인 사택 '모자원'은 힘든 시절, 가족을 돌본 어머니의 삶이 남아있는 곳이다. 지금도 모자원에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님과 가족들이 살고 있다.

우물마을에는 힘든 시대를 겪어온 홀몸 어르신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 '할머니집'이 있다. 노인 한명이 죽으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처럼 봉산동은 수많은 이야기와 어머니의 삶이 녹아있는 은혜의 땅이다.

1990년에는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원주의 성장이 시작되고 생명·나눔·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봉산동은 이야기의 나이트가 겹겹이 쌓여 있는 어머니의 마을이라 부르고 싶은 이유이다.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기억문화의 발현

마을의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문화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평범하지만 정 깊게 부땀기며 살아온 마을은 공동체가 존재하게 만든 사회적 커뮤니티이다. 마을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어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되었을 것이다. 한 개인이 오롯이 간직해온 삶의 기억이 마을 공동체의 기록으로 발굴되고 발현될 때, 그 기억은 사회적 기록이자 이웃의 공동자산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기록은 지나온 삶을 과정으로 남기고, 기억은 삶의 문화가 되어 공동체 회복의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마을로 스며들게 할 것이다.



이웃들의 사랑방이 되어주는 경희 엄마의 동네미용실

김양숙(75) 원장
임윤지당길, 한 미용실

‘경희 엄마’로 통하는 경찰서 앞, ‘한 미용실’ 김양숙 원장은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서 15살에 봉산동 개륜마을로 왔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 딸이라고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개륜마을에 있던 병마개를 만드는 콜크 공장에 다니며 야간에는 남부시장에 있던 배문중학교라는 야간학교를 다녔다. 남부시장을 지나가는 길에 부부약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약국 옆에 있던 야간 중학교로 지금은 없어졌다.

19살 되던 해에 우물마을에 있는 모자원에서 미용기술을 배웠다. 집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그러다 누군가 미용을 배우면 좋겠다는 말에 다니게 되었다. 모자원에서는 미용기술 뿐만 아니라 뜨개질 기술도 무료로 가르쳤다. 그때가 1965년이었으니 미용경력 54년을 만들어 준 시작이었다. 미용학원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머리에 있는 비듬을 터는 것이었다.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파마 말아 올리는 기술(일본어로 ‘소도마끼’라 부른다)이 좋다고 미용기술을 배우는 중에 취직을 했다. 모자원은 전쟁미망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어준 하꼬방이라 부르던 판자촌이었다. 정부에서는 미망인들과 윤락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미용과 뜨개 기술을 가르쳤다.

26살에 남편 이용근(당시 30세)씨와 결혼을 하고 일산동에 ‘희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을 개업했다. 남편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살다 전쟁이 끝난 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곳으로 이사했다. 원주초

1 우찌마끼·소도마끼

파마할 때 사용하는 일본말. 우찌마끼는 속으로 머리를 만 것, 소도마끼는 파도모양처럼 겉으로 뽀뽀하게 만 것. 옛날에는 불에 달군 머리인두로 일일이 불로 지지는 고대를 했다.

등학교 45회로 함중한 전 도지사, 김기열 전 원주시장이 동창생이다. 남편은 월남에서 자동차 정비와 운전병으로 다녀온 후 택시 영업을 하다 큰 사고로 많은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구입한 택시는 1960년대 일본에서 생산한 신진 코로나택시로 80만원에 샀다. 기본요금 2km에 60원 할 때였다. 829번 택시 넘버는 절대 잊지 못한다. 남편의 택시 사업이 망하면서 미용실도 함께 문을 닫고 다시 봉산동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당시 우물시장 길은 비포장 진흙땅이라 택시도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다. 우물시장에는 두부 공장이 있었고 배말타운 자리에는 동부시장이라는 작은 시장이 섰던 기억이 난다. 배말타운 맞은편에는 현 상지대학교의 전신인 원주대학이 있었다. 그 후 현재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맞은 편, 목욕탕 건물 2층에 있던 ‘한 미용실’에서 미용일을 계속했다. 남의 집을 많이 돌아다니며 미용일을 하다가 아들이 3살 때 경찰서 앞의 지금 건물로 들어왔다. 4차선이 나면서 남편과 함께 보험도 해약하고 빚도 내고 해서 건물을 사버렸다.



50년 이상된 머리인두 가열기를 보관하고 있다.



미용기술을 배울 때 학원 모습

길이 새로 나면서 봉산동을 떠나야 할 상황도 있었지만 정이 들고 떠나기 싫었다. 그러던 중 뒤편에 살던 노부부의 집을 인수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노부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비가 오면 넘어가서 빨래도 걷어 드리고 열린 장독도 담아드리고 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다. 살림만 하더라도 여기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샀는데 건물이 창고형태로 되어 있어 미용실 허가를 내고 지금까지 동네 사랑방처럼 운영하고 있다.

60년대, 그 시절에는 미용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귀하고 미용실도 별로 없을 때라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 어디 관광이라도 가려면 새벽 2시까지 고데를 하러왔다. 김양숙 원장은 지금도 50년 이상 된 가위 모양의 옛날 고데기를 보관하고 있다. 머리인두라고 부르는 고데기를 연탄불에다 달궂고 머리를 말아 올렸다. 우물시장에서도 미용실을 꽤 오래해서 지금도 잊지 않고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있다.

“50년을 넘도록 이곳에서 미용일을 해 왔으니 사람들이 그래, 경희 엄마가 올려준 머리로 환갑잔치도 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다. 그러니, 큰 애가 50살인데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오던 손님이 지금도 오고 있어.”

어디 멀리 가기도 그렇고 다른 미용실에 가면 어색하기만 하고 이곳이 편하다고 온다. 시설은 좋지 않지만 사랑방 가는 느낌으로 만나고 행복하게 늙어간다. 경로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곳이 잔칫집이었다. 밥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해 먹고 그랬다. 경로당이 생기고 나니 아침에 잠깐 들려 커피 한잔 마시고 간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당에도 가고 책도 볼 수 있어 편해졌다. 이웃의 사랑방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던 경희 엄마의 동네미용실도 이제 역사가 되고 있다.

20년 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가고 싶은 곳에도 가고, 원주천 건너 중앙시장에서, 물건도 사서 싣고 온다. 닭띠라서 그런지 막 돌아다니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식들 가르치고 살기 위해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했다.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둘째딸은 아직 미혼이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능력이 있으면 결혼할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미용실에 걸린 낡은 면허증과 요금표가 한미용실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막내 아들의 원주초등학교 입학식 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결혼식에서 친구들과 찍은 기념사진 1970

많고 많은 늙은 가위에 50년 가족의 삶이 녹아 있다



백설세탁소, 김양식(71세)
 우물시장길

봉산동 당간지주 건너편에서 30년을 넘기며 백설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양식씨는 16살 때부터 기술을 배워 54년째 세탁업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라 어린 나이에도 기술을 배운다면 식구들 입 던다고 내보냈다. 밥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어깨 넘어 배운 기술이 평생을 살게 해주었다. 30살쯤 결혼해서 남매를 두고 있다. 딸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아들은 천안에서 살고 있다. 아내는 남부시장에서 아지매 칼국수라는 작은 분식집을 10년째 하고 있다.

처음에는 태장 2동에서 시작해서 학성동으로 옮겼다가 80년대 중반, 이곳에 완전히 정착했다. 그때 나이 38살 정도 되었을 때다. 옆의 작은 가게에서 세를 얻어 영업을 하다 지금의 건물을 인수했다. 당시 우물시장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탁일이 많았다. 원주경찰서, 세무서, 동사무소, 교육청, 원주초등학교 등 대표적인 기관들은 모두 이곳에 있었고 세탁소도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라 괜찮았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아가씨들도 여기 방 얻어놓고 살고 했다. 명절 때는 밤 늦게까지 일을 했다. 지금은 하루 2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8천원 버는 날도 있다. 원주초등학교 직원들이나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가끔씩 온다. 큰 욕심없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내 집이니까 마음을 편하게 두고 있다.

50년을 벌어먹은 늙은 가위

세탁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50년이 넘는 수선 가위가 소중한 보물이다. 닳아 빠진 이 가위에 가족의 삶이 녹아 있으니, 누구는 버리고 새로 사라 그러지만 50년 인생이 묻어있고 손에 익숙해져 버릴 수가 없다.



김양식, 차용자 결혼식 사진



“내가 뭐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물마을은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한 자리에서만 30년을 넘도록 하니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내 터가 여기에 있으니 정도 많이 들었다. 모레가 생일이니 손주들하고 딸, 아들네가 온다. 아들, 사위와 술 한잔하고 용돈도 받으니 참 좋다. 사는 것이 힘들겠지만 받으면 손주들에게 또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때가 있다.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 손주들 사 달라는 것이 있으면 사줄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줄 수 있어 즐겁다.

‘우리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놀만 한 장소가 마련되면 좋겠어.

그냥 무료하게 하루하루 보내지 않고 소일거리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 말이야.’



20년은 직원으로 20년은 사장으로

승리이용원, 김운석(72)
봉천길



김운석씨의 승리이용원은 1957년 경, 초등학생 시절에 행구동에서 장 보러 가는 부모님을 따라 다니다 본 기억이 있으니 이발소 역사는 60년이 넘는 것 같다. 김운석씨는 17살 때부터 이발 기술을 배워 군에 다녀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원에서 일을 했다. 40년 전, 이곳의 직원으로 20년을 일하다 가게를 인수하고 지금까지 이름도 바꾸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발소가 많지 않을 때라 직원을 5명까지 두고 바쁘게 일을 했다. “학교 다니다 진학을 못하니까 이발기술을 배운거지, 내가 볼 때 그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군대 가기 전부터 했어요. 한…17살?” 이발 요금이 저렴하니 수입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크게 계산 안 하고 어렵지만 나누고 살았다. 이발소가 한창일 때 고객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 지금은 노인들이 주로 오지만 그때는 군인이나 행구동의 농촌 사람들도 많이 내려왔다. 장일순 선생도 이발소에 왔다 갔다. 항상 병거지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조용히 와서 손질도 많이 안 하고 머리 깎고 모자 쓰고 갔다.

70년대 원주의 전성기를 누리던 봉산동에는 노는 방이 없었다. 지금은 많이 비어있지만 그때는 모두 세들어 살고 그랬다. 인구도 많고 원주에서 제일 큰 원주초등학교도 있었으니, 한 학년이 4~500명에다 많을 때는 9반까지 있었다. 한반에 4~50명 정도 되고 조그마한 의자로 뽁뽁하게 앉았다. 지금은 애들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선진국 교실이 된 것 같다. “1970년대 초반인가 대홍수로 인해 원주천 제방둑이 다 터지고 우물마을에 물이 들어왔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피난 와서 살다 간 적도 있었어요.” 우물시장에는 두부공장과 한약방도 있었고 시장길 중간쯤 제방 옆에는 술공장도 있었다. 지금 현대아파트 자리와 무위당 선생 자택 앞은 다 논이었다. 박물관이 있던 자리는 과수원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쓰던 건물은 원주사방관리소로 사용되었다.

이 세상 떠난 망자의 마지막을 위한 삶을 살다



김기운(82세)
봉산로, 회다지 경력 20년

김기운씨는 21살 때 부터 직업군인으로 7년 동안 복무하고 제대 후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5년 정도 광부로 일했다. 군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도 많이 봤다. 당시에는 직업군인으로 제대하면 광산에 선착순으로 취직을 시켜줬다. 아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쩔수 없이 광부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황성군 추동리로 와서 남의 집을 얻어 살다가 원주 행구동 꽃밭머리에 땅을 사서 나왔다. 행구동에서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과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되어 갚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 앉고 말았다. 1970년대 말이었는데 빚만 4천만원이 넘어서 다 갚고도 5백만원의 빚이 남았다. 밭도 압류되고 해서 모두 정리하고 이곳 봉산동 기차길 옆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기차소리에 처음에는 잠을 못 잤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

봉산동에서는 우산동 군지사의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던 군납공장에 취직해서 5년 정도 다니다 공장이 없어지면서 그만두었다. 그 후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어 시작한 일이 장사 대행업이었다. 12명이 한팀이 되어 망자를 보내는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별별 떨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랬다. 애들 키우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밤에는 2명씩 조를 짜서 망자의 엄을 하러 갔다.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이니 사람이 살다 가는 것을 당연한 자연의 순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정해진 가격이 없으니 여유가 있으면 많이 받고, 없으면 안 받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회다지소리도 배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상 떠난 망자의 마지막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망자의 엄하는 일은 참 힘들었어, 목욕도 해주고 쌀도 넣어주고 100원 짜리 노잣돈도 넣어주고. 예전에는 5일, 7일 장사를 지냈지, 술도 해야 하고 상포도 사다 상복을 지어야 하고 그러니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날 마당에 토롱을 해놔다가 장삿날 꺼내서 발인하고 장지로 떠났어요.”

옛날 병원에는 그런 장례시설이 없었으니 대부분 집에서 다 했다. 혼자 살다가 죽은 사람은 시청에서 연락와서 공동묘지에 해주고 그랬다. 장사는 연기할 수 없는 일이라 비오고 눈이 와도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동네 사람들 죽으면 다 내가 하고 그랬어요. 그 자손들이 아버지 죽었을 때 나한테 와서 굿신거리고 그랬는데 뭐... 동네 분들 죽으면 내가 다하지, 그런데 장사 끝나고 나면 고만이야,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 죽으면 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고 막 그랬지. 그거 지나면 본척 만척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밀레장사(산소를 옮기는 개장)도 하고 그랬는데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개장하려면 산을 2시간씩 올라가야 하는데 아파서 그만뒀다. 오랜 세월 이 일로 벌어먹고 돈도 벌고 했다.

“이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든 노인들만 살고 있어, 이웃간의 왕래도 없고 반장조차 없으니 모이는 일이 더더욱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그래도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봐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



우물마을 남통장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남철현(90세)
우물시장길 62, 남일상회

1929년 충청북도 괴산군 상모면 중산리에서 태어난 남철현씨는 올해 90세로 우물마을의 최고령 어른으로 기록되고 있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지난날의 기억을 들려주었다. 14살 때 경기도 양평으로 가서 살다가 18살에 결혼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20대 중반쯤에 원주로 이사와서 봉산동에서 64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 원주에서는 시내의 동명상회라는 잡화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을 인정받아 사장으로부터 우물마을에 초가집을 한 채 받았다. 1960년대 우물마을은 판잣집과 초가집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의 제방 쪽은 모두 논이었다. 30살 중반쯤 부터는 중앙시장 옥로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를 받아서 판매하는 배달점을 운영했다. 반곡동, 행구동, 소초면, 금대리 가리파재까지 배달했다. 막걸리 배달을 하면서 30년 정도 남일상회라는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모든 공문서가 한문으로 쓰여지던 시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였다.

가정집에서 시작된 마을금고가 봉산새마을금고로

20대 중반부터 70살 정도까지 봉산동에서 반장과 새마을지도자, 통장을 맡아 마을을 위해 봉사했다. 쌍다리 건너 남통장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반장으로 임명되면 춘천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고, 통장이 되면 경기도 안양의 중앙정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모든 서류와 공문서가 한문으로 쓰여지던 시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였다. 관공서와 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이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1980년대 한번은 봉산동사무소로 전달된 김영진 강원도지사의 만년필이 든 선물을 받으니 직원들의 대우도 달라졌다.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가정집에서 시작한 마을금고가 봉산새마을금고로 발전하게 만든 일이다. 3년여 동안 집에서 마을금고를 운영하다 재정이 커지고 장부 정리가 힘들어 해산하고 뜻있는 지역인사들과 봉산새마을금고를 설립하고 8년 정도 감사를 맡았다.

군번 2301543, 국가를 위해 헌신한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남철현씨는 한국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쟁 중에 화랑무공훈장(제45045)을 수여받았다.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9년 1사단 11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분대장으로 개성 송악산의 치열한 전투에 참전했다. 개성에서 후퇴해 문산으로 와서 임진강을 지켰다. 군번 2301543, 90세 어르신이 겪은 전쟁은 어제 일처럼 너무나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봉산1동 새마을사업_학꾸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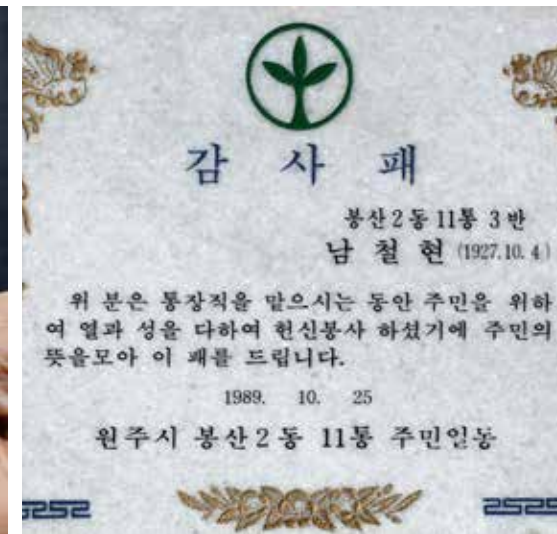
원주에 와서는 무슨일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시장에, 그때는 원주읍이었지, 그때 중앙시장 동명상회라는 상점에 점원으로 한 3년 있었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인정해 줬는지 조그마한 집 하나를 사줬어요. 주인이 이 북사람인데 흙벽돌로 지어진 초가집 하나를 사주더라고, 그때가 1960년대 초반쯤 되었을 걸,

동명상회를 그만둔 후에는 다른 일을 하셨나요?

막걸리 배달하는 일도 하고 그 후에는 마을 반장을 하다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통장도 하고 그랬지, 11통 통장을 했는데 한 30년은 한 것 같어.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 새마을 사업할 때는 도로공사나 사방공사 같은 일에 많이 참여했어요. 제방 쌓는 공사에는 감독으로 나서서 학꾸따기라고 부르는 데 나무판을 사각으로 박스처럼 만들어 세숫대야나 양은냄비로 흙을 퍼 담아서 가지고 오면 전표나 쌀을 주고 그랬지.

춘천가서 새마을교육을 받았어요, 강원도 반장들이 모여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일주일씩 숙박 교육을 받고 그랬어요. 통장을 하려면 연수원에 가야해, 경기도 안양연수원에서 인술 받아야 통장이 되요. 반장이 새마을 지도자 되려면 춘천가서 교육받고, 대통령, 국무총리, 원주시장 표창도 받고 안 받은 상이 없을 정도였지, 그게 장마 때 다 떼내려갔어. 집에서 마을금고도 운영했지, 동네 주민들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한 3년 정도하다 보니 금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벽차서 그만뒀지. 그 후에 봉산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는데 마을금고가 그 시 초였다고 할 수 있어요. 봉산새마을금고에서는 8년 정도 감사를 하기도 했지.





옛 봉산2동 사무소 앞

그 당시 우물시장은 어땠나요?

우물시장은 저기 아래, 점집 있는 골목이었어요. 우물 주변에 점포가 8~9개 정도 있었지. 작은 우물이었는데 수도가 없던 시절에 그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아줌마들이 콩나물이나 두부, 과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팔고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우물 주변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지, 주민이 모여면서 집도 늘어나고 정부에서는 후생주택을 지어줬지, 한 30호 정도를 우물시장 위로 지어서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 봉산동 다리 건너서는 시청밖에 없었고 이곳에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사방사업소 등 공공기관이 다 여기 있었지.

우물시장에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원주에 하나밖에 없던 술공장이 있었어요.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을 떼야하고 식히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원주천이 바로 옆에 있으니 장소로는 아주 좋지. 우물시장길은 복개가 안되었을 때는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했어요.

무공훈장을 받으셨네요, 전쟁에도 참전하셨던가 봅니다.

한국전쟁이 나기도 전에 군대를 가서 개성 송악산 전투에 참전해서 부상 당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전멸될 때 혼자 살아서 왔지.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진할 때 선봉에 서서 백두산 밑에까지 갔다가 왔어, 제대는 팔공산 전투를 하고 끝냈어. 그때는 대구 하나밖에 안 남았어 바다도 부산도 점령당하고 대구 팔공산 하나만 남기고 다 뺏겼어,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지... 어디 피할데가 있어? 그냥 죽기 살기였으니까 그때는 뭐...

지리산에 빨치산 소탕하러 가기도 했어, 전쟁이 끝날 무렵 남아있는 공산당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리산 2,000고지에서 밤을 새우고 그랬지. 전쟁 중에는 훈장을 안줬어, 그때는 조그마한 종으로 만든 증을 줬지.

예전에 가게를 하셨나 봅니다.

남일상회라고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옆집에 세 들어 살면서 가게를 하다가 집을 짓고 살아 온거야. 가게 접은 지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집사람 떠나보낸 후부터 정리했지, 심심하지 않게 용돈이나 하려고 하는데 노인이 장사를 하니 미성년자들이 화장하고 가발 쓰고 담배 사러오고 물건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뒀어.





양한모씨와 어머니 박기순(95)씨

봉산동, 그리고 우물시장의 기억

양한모(72세)

봉산동 최고령 박기순(95세) 어머니의 큰아들, 문화관광해설사

원주초등학교를 졸업(50회)한 양한모씨는 어린 시절 중앙시장에서 살다가 봉산동으로 왔다. 20살에 결혼한 어머니가 비단장사를 하면서 일수도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말에 개설된 중앙시장은 판잣집으로 지어진 2층으로 1층은 상점, 2층은 생활공간으로 사용했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초가집과 판잣집이고 중앙시장도 비슷했다. 아버지는 키우던 소 9마리를 팔아 중앙시장에서 상점을 하다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봉산동에 농토를 사서 이사를 왔다.

19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봉산동 우물시장은 제방도 없고 미나리가 많이 나는 논이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제방을 넘치고 마을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제방을 쌓아 물길을 막아서 만든 마을이 우물마을이다. 제방 사이에는 하천하고 가깝게 술 공장이 있었다.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으로 불을 때야하니 물이 있는 하천 옆에 공장이 있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팽이 앞에 구슬을 박으려면 술 공장에서 떨어진 굳은 쇳물 방울을 팽이에다 박아서 놀곤 했다.



우물이 있어 우물시장이라 했는데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생긴 것으로 기억한다. 예전 우물은 샘에서 나오는 자연 우물이었는데 나중에는 두레우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당시 우물마을에는 20여 가구가 살면서 새우젓 장사를 했는데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 잘 팔렸다. 수도가 없던 시절이라 자연스럽게 우물은 주민들의 공동 공간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소로 형성되었다. 번듯하지는 않지만 생활이 모이는 터전이니 감자, 옥수수 같은 농작물과 두부, 콩나물 등 계절 따라 물건이 나왔다. 우물시장이 커지자 지금의 배말타운 자리에 동부시장이라고 새로운 시장이 생길 정도였다. 아침, 저녁으로 하던 시장이 주야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시장, 남부시장, 역전시장 등이 개설되었다.

행구동 영강교회 자리가 그 당시에 유엔군들이 사격연습을 하는 사격장이었다. 그곳에 가려면 봉산동 집 앞을 지나가야 하니 어린 마음에 “헬로 기브미, 초콜렛” 하면서 따라가면 미군들이 웃으면서 던져주고 그랬다.

봉산동 성당 앞에는 모자원이라고 한국전쟁으로 전사한 군경 유가족을 위한 전쟁미망인 사택이 지어졌다. 판잣집으로 10동씩 60가구로 지어 한집에 3~4명씩은 살았으니 상당히 많은 주민이 거주했다. 쌀도 배급받아서 살아가는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과 성냥을 사용하며 살아야 했다.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온 곳이 모자원이었다. 태장 1동에 있던 한전 전력소에서 전기를 보내주는데, 원주시내에 공급할 상수원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했다. 지금의 치악교 아래 집수정에서 남산 배수지로 물을 끌어올려 시내 가정집으로 수도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봉산동을 지나는 전기선로를 지나야 하는데 그때 특별히 모자원에 전기를 넣어준 듯하다. 그 시절에는 시간대로 전기를 사용하게 했다. 작은 판잣집에 두집이 함께 전기를 사용하게 중간에 하나 매달아서 사용하게 해주었다. 그때는 옆집과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으니 거의 함께 생활한거나 마찬가지였다. 전기가 들어 온다는 것은 새롭고 놀라운 문명의 발견이었다.

경기 여주 강천면 도전리사무소 앞에서 결혼후에 찍은 부모님의 기념사진 1944



봉산동천주교회 견진성사 기념촬영

부친 양승학(베드로)의 기증으로 시작된 천주교 봉산동 성당

봉산동성당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2년 학교를 설립하려던 땅이 성당부지로 마련되었을 뿐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당시 독실한 가톨릭신자였던 부친(양승학 베드로)은 본인이 짓고 관리하던 허름한 벽돌 토담집과 그에 딸린 헛간을 기증했다. 부친이 기증한 토담집은 원래 돼지와 소를 키우기 위한 사료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창고시설이었다. 성당 뒤편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관리를 하던 상황에서 성당부지는 있으나 당장 미사를 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기증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9일, 초대 주임으로 신현봉(안토니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신 신부는 부임하자마자 헛간은 임시 성전으로, 토담집은 사제관으로 손질하였다.

양한모씨의 증조할아버지는 1830년대부터 여주 강천에서 천주학을 시작했다. 세 집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여섯 집으로 늘어나고 천주교 예절을 배우고 미사를 드리고 했다. 봉산동 성당이 없을 때는 강 건너편에 있는 원동성당에 다녔다. 집에서 내다보면 막힘이 없이 잘 보였다. 성당에 불이 잘 들어와 있고 성탄절에는 기분이 제대로 나기도 했다. 그때는 어른들이 가라면 당연한 것으로 성당을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봉산동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기 참 좋은 동네 아닌가 싶어요”

봉황산이 뒤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니 그 안에 사람들은 봉황처럼 큰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양한모씨는 봉산을 봉황산이라 부른다) 봉황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단구동에서 중앙동까지 원주시내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속의 섬처럼 되어 가는 것이 많이 안타깝다. 일제강점기에는 봉산 아래에서 인재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봉산의 맥을 끊고 봉살미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말의 지도를 보면 봉산뫼가 아니고 봉황산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다. 우리는 그런 봉황의 맥을 잇는 봉황산을 다시 찾아야 한다. 실제로 봉산동은 많은 인물들과 관련이 많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임윤지당, 민궁호 의병대장, 최규하 대통령, 무위당 장일순, 올림픽 은메달 지용주 권투선수, 치악산 비로봉 돌탑을 쌓은 용창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봉산의 맥과 관계 맺고 있는 마을이다.

암울한 시대, 당시 춘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무위당 선생의 옥바라지를 하던 선생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무위당의 어머니께서 면회를 다녀오시면 입던 수의와 안에 입던 한복 같은 것을 개륜마을에서 내려오는 개울에서 빨았다. 모자원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 옆에 있는 개울가에 모여서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그랬다. 아침이면 모두가 인사 나누는 곳이었다. 집에는 물이 없으니 먹고 세수하던 소중한 생명수였다.

“열정이 있어야해, 그 동네의 매력을 발견해야 떨림도 있고 울림도 있는건데 누가 건들어 주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주냐 이말이야. 누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홍업면 대안리 양한모씨의 외가에서 찍은 가족사진



지학순 주교와 찍은 기념사진



봉산동 1960년대

봉산동과 함께 한 95년의 삶

박기순(95세)
봉산동, 박마리아
양한모씨의 어머니, 봉산동 최고령 주민

원주에서는 언제부터 살았나요?

친정은 흥업면 대안리 승안동인데 20살에 여주 강천면 도전리(당시에는 원주군이였다)의 18살 총각에게 시집을 가서 살다가 원주 중앙시장으로 왔어, 남편은 27살에 군대를 갔다 왔지. 중앙시장에서 비단 장사하고 일수계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시장에 불이 크게 나서 이곳으로 와서 농사를 지었지. 비단장사 할때는 부산까지 가서 물건을 가져왔어, 서울에는 난리가 나서 폭격을 맞고 엉망이라 공장이 없었으니까. 부산에 내려갈 때는 느타리 버섯이나 대추 같은 것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팔고 그랬어. 중앙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하려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서 하루, 이틀 뒤에 이자 받고 해서, 돈이 좀 모아지면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좀 많이 샀지.

봉산동성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봉산동성당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창고에서 미사를 봤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남편이 관리하던 헛간같은 창고를 기증한 거지, 그제 봉산성당의 시작이야, 새 성당을 지을 때는 내가 성당 옆에 사니까 일하는 인부들에게 매일 같이 국수를 삶아줬어, 성당 지을 돈이 없고 그러니 이것 저것 팔아서 짓는데 보태고, 장아찌나 김치도 해다 드리고 그랬어.

당시 모자원의 시설은 어땠나요?

한국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이 사는 곳인데, 모자원은 모두가 판자로 되어있는데 판자에 구멍이 뚫뚫 뚫려있으면 안이 다 보이는 거야, 옆과 옆 사이도 소리가 다 들리고 옛날에는 공동화장실, 공동 우물 쓰고 그랬어.

비로봉 돌탑쌓은 용창중씨도 보셨다구요

그럼, 망태기를 지고 꿈에서 오늘은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고 신호를 준다네, 그이가 쌓은 돌탑에 올라가 찍은 사진도 있어, 용창중씨 부인은 모나카라는 과자장사하면서 자기일을 열심히 했지 성당을 다녔어, 용창중씨는 주로 배달을 했어.



박기순(95) 어머니



20년 전에 찍은 양한모씨 가족사진



용창중씨가 쌓은 비로봉 돌탑 앞에서 1960년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른다

김진욱(86세), 배의식(82세)
무위당길, 모자원(전쟁미망인 사택)

횡성에서 태어난 김진욱씨는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전쟁으로 경찰공무원이던 아버지를 잃고 가족들과 봉산동 모자원으로 나와 살았다. 모자원은 전쟁에서 사망한 군경 유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해준 전쟁미망인 사택으로 하꼬방이라 부르던 판잣집이었다. 한집에 방 한 칸과 부엌 하나씩 반으로 나누어 두 가구 씩 살게 해줬다. 김진욱 씨는 봉산동 판잣집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넷을 보살피는 힘든 환경에서도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병설중학교를 마쳤다. 춘천으로 올라간 진욱씨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춘천사범학교에 입학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팔이와 남의 집 청소일을 하는 등 고생도 참 많이 했다.



김진욱, 배의식 결혼사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편을 잡고 있던 당시 27살이던 진욱씨는 횡성 우천면 새말의 23살 배의식씨와 1964년 결혼했다. 당시 모자원 판잣집의 열악한 형편으로 아내의 큰집이 있는 횡성에서 식을 올렸다.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정선, 평창, 횡성 등 오지 산골을 돌면서 근무를 했다. 당시의 교사 봉급으로는 어머니와 아내, 여동생 넷을 보살피기는 쉽지 않았다.

김진욱씨의 아내 배의식씨의 이야기에는 그 시절의 힘든 생활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23살에 봉산동 모자원으로 시집 온 배의식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둘째가 4살 때 중앙시장에 일을 하러 나갔다. 교사 봉급만으로는 식구들 먹고 살기 힘들어 중앙시장 바느질 방에 다녔다. 신세계관광이라는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집에서 세를 살면서 일을 했다. 막내 딸 낳고도 일을 나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려서 못 나갔다. 애들이 무용복 맞춰 달라 하니까 가끔씩 나가서 해주고 급한 일거리는 조금씩 꿰매주고 그렇게 몇 년을 했다. 위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래로는 시누이 넷을 학교 보내고 생활비로 감당하다 보면 봉급 봉투는 구경도 못 해봤다. 돈이 없으니 시장에서 장도 못 보고 김칫국만 끓여 먹이고 학교에 보냈다.



배의식씨 젊은 시절



김진욱씨 초등학교 교사 시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 지금 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 못 할 일이지.
막내딸 2살 때 봉급봉투를 처음 봤으니”

4남매가 모두 잘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은 남편의 선한 성품과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된 것 같다. 책임져야 할
식구도 많았고 혼자서 이곳저곳을 힘들게 돌아다니면서도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참 고마운 사람이다.

“친정 아버지는 사위를 끔찍하게 아끼고 믿었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봉산동은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사방
관리소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공서가 있는 원주의 중심이었
다. 지금 현대아파트 자리는 논이었고 철다리 건너 개륜마
을에서는 작은 개울이 내려와 영락교회와 우물시장을 거쳐
원주천으로 흘러갔다. 개울에는 작은 나무다리가 놓여 있고
개울가에서는 동네 여자들이 빨래를 했다. 뒷집에 무위당
선생님이 살고 계신 것은 알고 있었다. 둘째 결혼식에도 다
녀가시고,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의 큰 인물인 줄 알게 되
었다. 붓글씨도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김진욱, 배의식씨 약혼 기념사진





“이곳은 시장하고도 가깝고 살기 좋아요, 개발만 잘되면 좋은데”

심묘섭(81세)
봉산길

심묘섭씨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11살 때 철원에서 서울 광나루로 내려왔다. 휴전 이후에도 그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미군들에 의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다. 어찌어찌 도착한 광나루에는 살 집이 없어 산막을 치고 들어가 생활했는데 비가 철철 새 들어왔다. 어디 피할 곳도 없으니 그 비를 다 맞았다. 가지고 나온 쌀도 다 먹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는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그 이후 송파로 갔는데 고모부가 배급소에 있어서 매일같이 배급을 실컷 타 먹었다. 철원에서 빨갱이라고 체포되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나온 고모부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혼한 고모부가 고모를 피해 원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다. 단구동에서 배급소를 운영하던 고모부는 힘들게 찾아온 심 씨 가족에게 방을 얻어 주었다. 그때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때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만종에서 지게 품을 팔고 고모는 떡 장사를 하면서 원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심 씨의 고모는 원주를 떠난 고모부를 찾아 철원으로 가버리고 남은 부녀는 땅 구덩이를 판 움막집에서 쫓불 켜고 몇 년을 살았다.



“옛날 우물시장은 하꼬방(판잣집)이 양쪽으로 있고, 아줌마들이 빨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없잖아. 비만 왔다 하면 거기는 물바다야 물바다. 홍수 나고 그러면 학교로 피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방이 있어 그럴 일은 없어요.”

원주에서 그렇게 8년을 살다 횡성군 갑천면 동막이라는 산골 마을로 시집을 갔다. 한 20년을 살다가 벌어먹기 위해 남편과 이곳 봉산동으로 나왔다. 원주에 나와서는 아카데미극장 옆에 있는 중국집에서 6년 정도 일을 했다. 심묘섭씨의 남편은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다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봉산동은 기찻길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나고 사람도 많이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깐 개발이 안 되고 봉산동에는 늙은이들만 살아. 젊은이들은 자꾸 나가고 발전이 되지 않아요. 다른 곳은 산을 밀고 집도 짓고 하는데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그래요. 이곳은 시장하고도 가깝고 살기 좋아요, 개발만 잘되면 좋는데...”



철길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천수남, 심묘섭, 김기운씨

**치악산에서 나물 뜯고 숯 만들어 우물시장에서 팔았다.
다 팔고 올라갈 때는 10리가 넘는 길이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천수남 (86세)
봉산길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겠어요.

행구동에서 애들을 다 낳아가지고 왔으니까, 막내딸이 45살이니, 여기가 45년은 더 된 거지.”

천수남씨는 16살 되던 때 횡성군 강림 부곡에서 고둔치를 넘어 행구동으로 시집을 왔다. 옛날에는 치악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어 팔고 했는데 지금은 못 하게 한다. 관음사 앞의 큰길로 소를 끌고 부곡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행구동에 살 때부터 우물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나물도 팔고 그랬다. 행구동에서 막내딸을 낳고 이곳으로 내려왔으니 45년이 넘는 것 같다. 45년을 살았으니 우물시장은 흰하다. 치악산에서 참나무 숯을 만들어 가마니에 담아지고 와서 팔았다. 숯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 그것도 많이 팔렸다. 다 팔고 올라갈 때는 10리가 넘는 길이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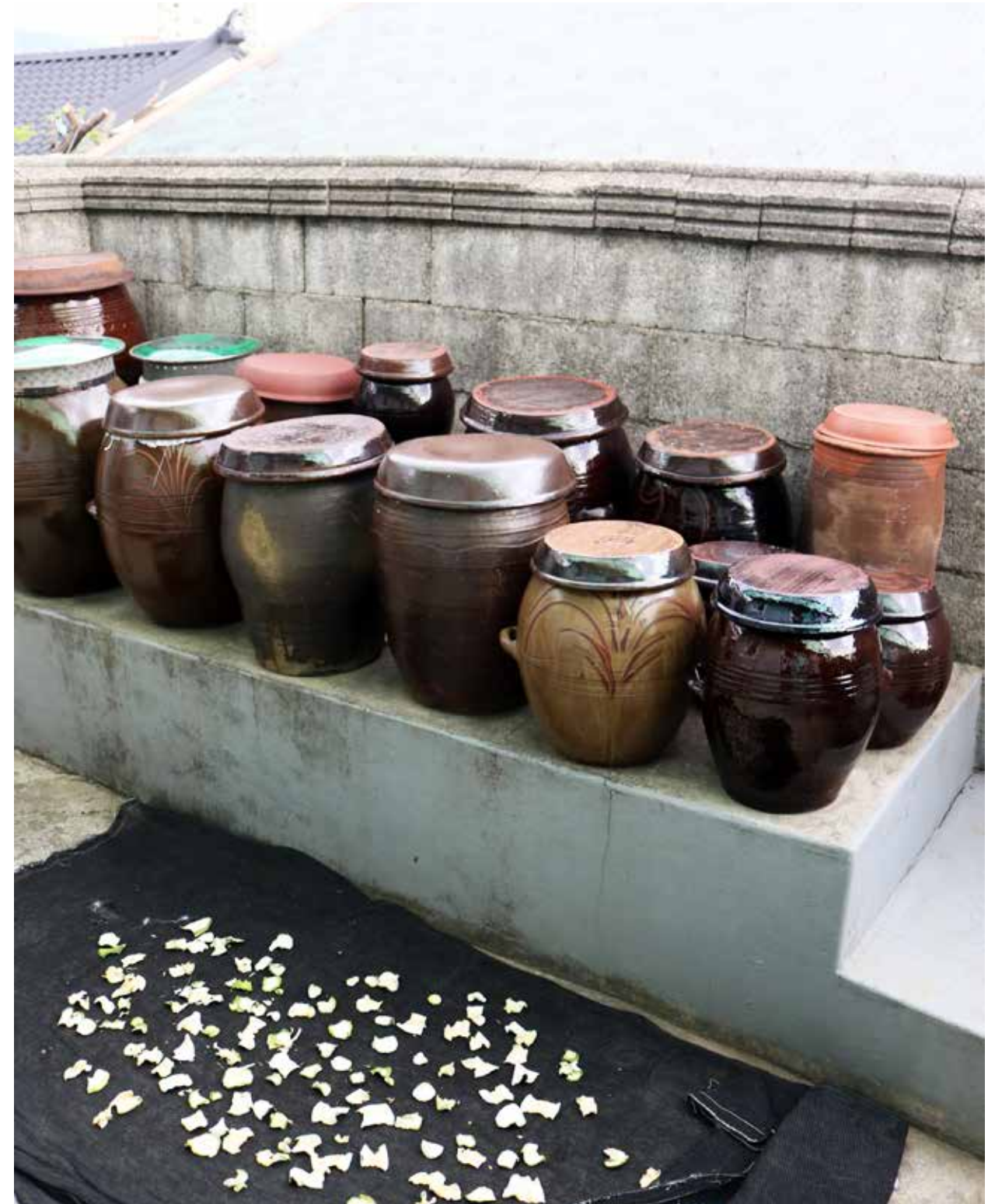
“우물시장이 한창일 때는 분위기도 참 좋았어요. 양장점도 있고 이발소, 미용실, 과자가게 등 다 있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양장점이 너무 좋아 보여서 큰딸을 기술 배우라고 취직시켰어요. 그 딸을 내가 20살 때 낳았는데 지금 70살이 되었네, 둘째 딸은 모자원에서 미용기술을 배워서 중앙시장에서 좀 성공했어요. 대림빌딩이라고 신부 미용을 하는 남의 미용실에서 일하며 돈 벌어서 자기가 차렸어요. 그때는 미용실에서 불 파마를 했어요. 한 미용실 있잖아, 거기도 아주 잘했어요. 경력이 있어서 잘했다고.”

천수남씨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물만 뜯어서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칼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라도 해야 아이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앙시장에서 조그만 칼국수집을 했다. 간장하고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싼 가격에 아주 잘 팔렸다. 20년 정도 힘들게 장사해서 이 집을 샀다.

“현대아파트 있는 곳하고 우물시장 끝에는 두부 공장이 있었고, 우물시장 좀 내려가면 된장, 간장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도넛츠 공장도 있었어요. 카스테라 이런 거, 애들 사 먹이려고 가보면 부스러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싸게 팔아요. 그것을 애들 먹이고 그랬어요. 빵 공장 아주 크게 했지, 우물시장 위로 올라가는 제방 뚝에는 술 공장도 있었어요.”

아랫집에 사는 심묘섭(81세)씨와 40년 넘게 자매 이상의 정을 쌓으며 살고 있다. 심묘섭씨의 남편은 환갑도 못 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다음 해에는 천 씨의 남편도 돌아가시고 해서 두 분은 더욱 애뜻하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봉산동은 기찻길로 인해 사고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지만 정든 고향이라 아파트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싫다.

“여기서 죽어도, 여기가 좋아요.”



아버지의 나무지계를 따라서 온 진달래꽃을 보면 봄이 왔구나, 했지

안상국(68세)
봉산동 17통장

1951년생인 안상국 통장은 이곳 봉산마을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닌 봉산동 토박이다. 원주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한 학년이 12반까지 있었다. 안 통장은 70년대 부사관으로 전방 25사단에서 근무하다 제대 후 고향으로 내려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반장을 하시고 그 일을 이어받아 반장을 하다 지금은 10년째 통장을 보고 있다. 철뚝마을이라 부르는 경찰서 뒤편, 산동네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쯤 사람들이 들어와 형성된 마을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는 이곳에 밭이 많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집을 짓고 그랬다. 이 마을에도 큰 공동우물이 있었고 앞에는 샘물도 있었다.

“나중에는 깡통 같은 것을 끈으로 연결해 만든 두레박 우물을 썼어.
여름날에는 자정이 넘으면 동네 아줌마들이 등목도 하고 그랬다고.”

“이 마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어. 나중에 수도가 들어왔지만, 급수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물 나와요! 하면 다들 나와 줄 서서 물을 받아가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동창인 안상국, 한정수씨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친구다.



봉산 철썩마을 철거 전의 겨울풍경 2019



봉산동 재해위험지구 철거현장



원주천 스케이트장 198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대였다. 어릴 때 잘 사는 옆집에는 특선이라는 전기가 들어와서 들리던 라디오 소리가 신기하기만 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UN에서 원조해준 우유 죽을 배급해주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배말타운 건너편에는 원주대학을 설립한 원흥목씨가 운영하던 성애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에 죽 타 먹으러 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생활이었다. 밥도 남기지 않고 흘린 것도 주워 먹으며 양말도 껌매 신고하던 시대였다.

부모님은 가을이고 겨울이고 나무를 했다. 연탄이나 석유가 없던 옛날에는 땔감으로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산에 남아나는 나무가 없었다. 쌍다리 건너에 나무장사가 있었다. 우리같이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은 지게에 지고 오고 좀 있는 사람들은 리어카로 가져왔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나무지게에 따라서 온 진달래꽃을 보면 봄이 왔네, 그랬지.”

봉천이라 부르던 원주천에는 물고기가 많았다. 밤에 횃불을 들고 나가면 다 보였다. 옛날 봉천내에서는 아줌마들이 나와 빨래를 많이 했다.

“아줌마들이 모여 빨래를 하는데 이집저집에서 하는 빨래가 섞이지 않고 내려가는 게 참 신기해. 젓물에 삶아서 아래로 흘러보내는데 표시를 해놓기는 했지만 참 잘 찾아가더라고, 젓물에 삶는 것은 돈을 주고 돌맹이 같은 것으로 터덕, 터덕 쳐서 내려보내지.”

겨울에는 얼음 스케이트장을 해서 전국대회도 열었다. 스케이트 날을 가는 것도 참 신기하고 우동을 먹는 것을 보며 많이 부러워했다. 3월이 되면 원주천이 녹으면 얼음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타고 빠지고 했던 추억도 있다. 철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났다. 지금은 가림막이나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냥 철길을 막 건너다니며 철길 옆에서 밥도 먹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철길 위에서 기차가 바로 앞에 올 때까지 서 있거나 철길 웅덩이에 엎드려 있다가 도망가는 놀이도 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니 세월이 참 빨라요, 내일모레가 70인데, 아직 마음은 어린애 같네. 몸은 아프고 그래도 과거가 참 생생해, 지금의 생활은 기억이 날듯 말듯 한 데, 옛날 일은 잊지를 못해.”



봉산동 새마을사업 1970년대 (사진:원주시)

어린 시절, 딱지치고 땅따먹기 하고,
산에 올라가 신발이 닳도록 전쟁놀이도 하며 그렇게 살았던 달동네도
이제 그리운 추억으로 남는다.

한정수(68세)
봉산로, 철뚝마을

달동네는 달이 잘 보이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만들어진 마을을 말한다. 도시의 산비탈이나 외진 곳에 지어진 낡고 오래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원주에서 달동네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을이 원동 남산, 학성동, 그리고 이곳 봉산동 철뚝마을이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봉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한정수 씨는 영월에서 어릴 때 이곳으로 왔다. 군 복무를 제외하고는 50년 정도를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몇 집 남아 있지 않은 그중에 한집이다. 한정수씨는 안상국 통장과 아래 윗집에서 살면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군에도 함께 갔던 동창으로 인생친구다. 어린 시절에는 딱지치고 땅따먹기하고 산에 올라가 신발이 닳도록 전쟁놀이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고향이다. 한정수씨는 군 제대 후 사업을 하다가 30살이 넘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군무원으로 1군지사와 1군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한정수씨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철뚝 동네라 부르던 달동네는 직업을 찾아 도시로 나온 사람들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판잣집을 짓고 살던 산마을이었다. 새마을사업으로 구르마를 사용해 모래를 실어 날라 옹벽을 만들었다. 달동네를 오르는 길도 주민들이 단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손수 일궈낸 삶의 터전인 것이다.

현실은 재해위험지구로 결정되고 오랜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마을은 모두 철거되고 떠나게 되었다. 이곳 주민들은 집만 본인 소유인 경우가 많다. 교육청이나 사찰 소유의 부지 또는 주인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들어와 살 때도 세금만 내면 된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다. 이웃들이 모두 떠나고 사라지고 하니 섭섭한 마음뿐이다. 떠나는 사람들이 받은 이주 보상비로는 어디 가서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50년 이상을 없는 사람들이라도 옹기 종기 모여서 웃고, 울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뭐, 그런 서운한 생각들이 많이 나죠.”

시 쓰는 어머니

60년 전의 이 마을은 논이었고 옆에는 보리가 노랗게 피어있었지,
나무하러 갔다 오는 엄마, 마중 나가던 생각이 눈에 선해, 아주...

윤영하(76세)
무위당길, 모자원

횡성에서 살던 윤영하씨는 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봉산동 전쟁미망인 시설인 모자원으로 나왔다. 그 때 나이 11살, 이곳에 올 때는 엄마와 3남매가 나왔는데 막내는 엄마 뱃속에 있던 유복자였다. 경찰공무원으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윤씨의 아버지는 횡성에서 근무할 때 주민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며 주변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여기, 애 키우기 좋지, 노인네도 살기 좋고, 학교 다니고, 차도 안다니고.”

윤영하씨는 원주초등학교와 원주여중을 졸업하고 미용기술과 타자를 배워 태창운수에서 타자수로 일을 했다. 그 후 대성현대아파트 밑에 6~70명 일하는 가발공장에서 검사하는 일도 하고 가발도 짰다.

“우물시장이 있어서 물 퍼다 먹고 콩나물 씻고 하면 아주 손이 시러,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렇게 저렇게 살았어 그때 서로 뭐해뭐해 이러면서 다 보이고 같이 살았지. 여름철에는 저녁 6시 쯤 되면 고구마, 옥수수 찌와서 나눠먹고, 모기 있으면 철썩 때리고, 한참 떠들다가 들어가고 그랬어.”

윤영하씨는 시를 쓴다. 봉산 60고개를 내려와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다. 국형사 계곡물에 발 담그고 “치악산 물줄기 어디로 가나, 이돌 저돌 부딪히면...” 이러면서 글 하나 쓰고, 청일 옥수수밭 길에서 만난 옥수수 수염을 보고 집에 오면 그 생각이 떠올라 잠자리에서 글을 쓰기도 한다.



옥수수 밭고랑

옥수수 대공 위에 상투 매고
빨강 수염 흰 수염, 가지각색
수염들 저마다 어른이요
마음은 젊어서 새파란 녹색 옷을 입고
바람따라 하모니카 불면서
너울너울 바람 부는 대로 춤을 춘다
옥수수 한 통 따다가
나도 하모니카 불면서 신나게 불어보자

당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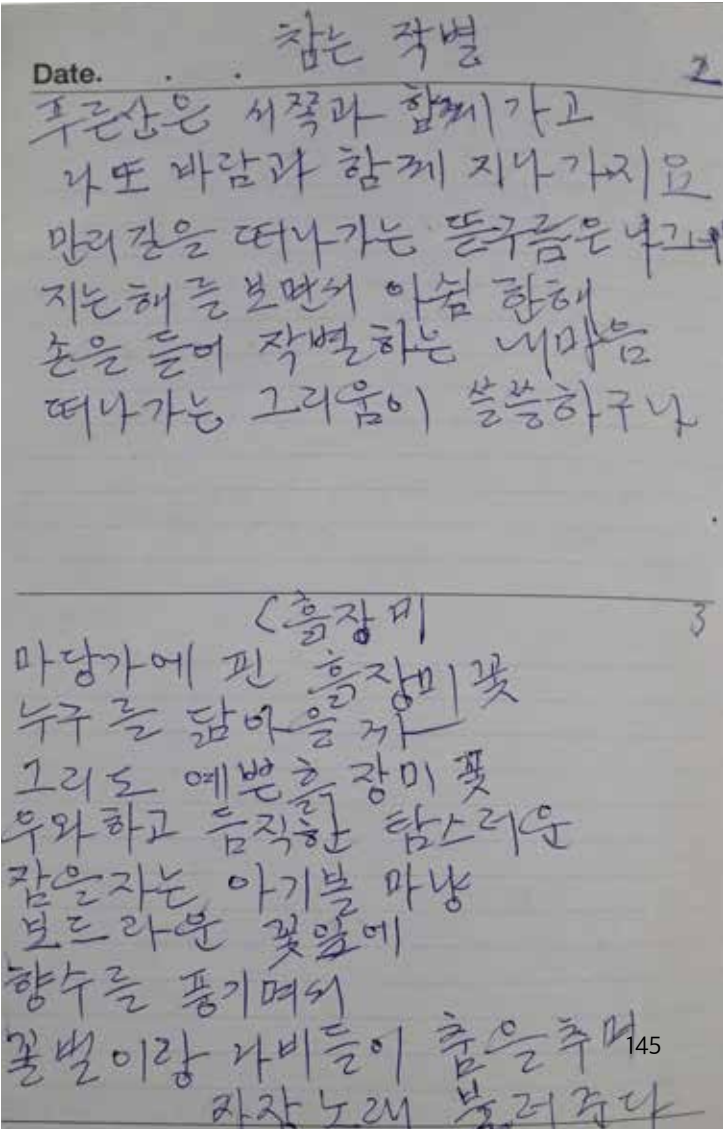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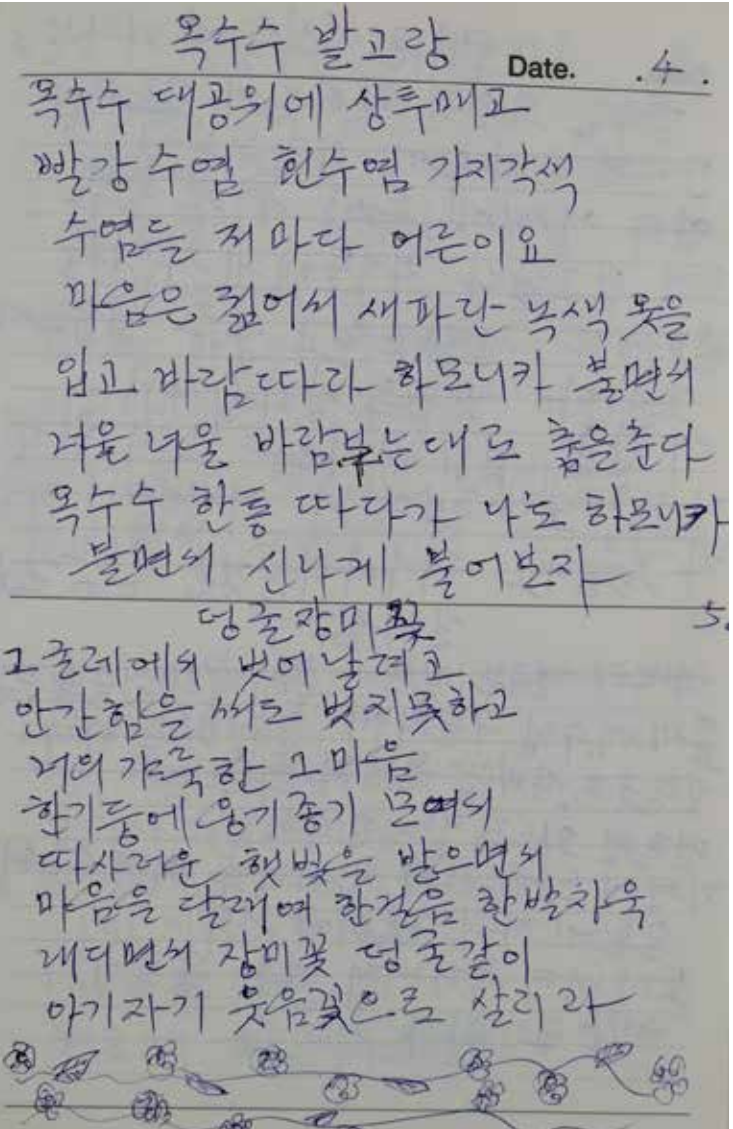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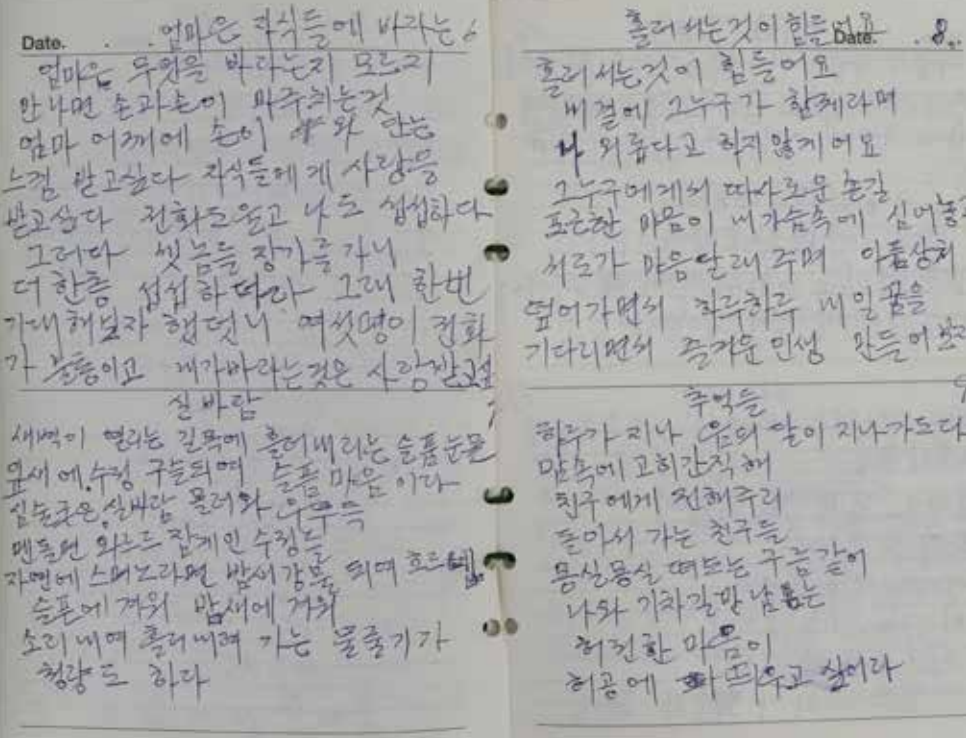
나의 마음이 탈 때 꺼주는 당신
내 마음의 속이 아플 때 위로해 주는 당신
내가 하소를 할 때 들어주는 당신
서로 사랑하며 일심동체, 만남의 기억

당신 머리가 하얗게 파뿌리가 되어도
우리 행복을 꼭 간직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살이 달갑게 살아 보자구요

참는 작별

푸른산은 서쪽과 함께가고
나도 바람과 함께 지나가지요
만리길을 떠나가는 뜬구름은 나그네,

지는 해를 보면서 아쉬운 한해
손을 들어 작별하는 내 마음
떠나가는 그리움이 쓸쓸하구나





“뭘 공터 같은 곳이나,
유희공간에 조립식으로 짓고 해가지고
못배운 사람들 글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그런게 의미가 있잖아요. 문화교실 같은 것으로...”

우물시장의 산 증인 ‘할머니 가게’ 23년의 일상을 일기로 기록하다

이순옥(81)
우물시장길, 옛 할머니가게

이순옥씨는 1963년 부터 우물시장에서 ‘할머니 가게’라는 잡화점을 32년 정도 했다. 분식, 학용품, 완구 등 안파는 것이 없었다.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길로 다니고 한번에 몰려 오면 2~30명씩 오고 물건 훔쳐가는 학생들도 많았다. 분식을 해서 앞에 나와 앉으면 화실에 사는 학생들이 와서 잘 사 먹었다. 개륜에서 내려오는 도랑을 복개하기 전에는 그 앞에 앉아서 팔았다. 지금의 집이 할머니 가게고 그 위에 동원상회, 셋별양장점, 봉미이발소, 연탄집도 있었다. 이때만 해도 시장에 사람이 많았다, 70년대 초 큰 장마가 나고 개봉교가 건설되면서 손님이 끊기고 시장이 없어졌다. 다리가 없을 때는 쌍다리로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많았다.

당간지주 옆 주차장 터에 함씨 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1년에 한번, 음력 정월 보름에는 팔시루 떡을 서너가마씩 해서 제를 지냈다. 옛날 이곳은 하루,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다. 집세가 싸기 때문에 여기서 10년, 20년 살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사 가고, 돈 벌고 살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마을이었다.



결혼식 후 동료들과 기념사진 촬영 1959

“나는 1·4후퇴 때 걸어서, 걸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기차 꼭대기에도 타고…
내가 실화야 정말 6.25 전쟁 실화야. 송장을 밟고 나오구.”

황해도 금천이 고향인 이순옥씨는 1.4 후퇴 때 시체를 밟고 건너며 순전히 걸어서 서울까지 내려왔다. 그때 나이가 13살이었다. 서울에서 기차 지붕에 피난민들이 다 올라탔는데 한강철교를 끊는다는 소식에 내리자 폭파했다. 내려서 걸어오는 중에 할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고 다른 가족들과 헤어졌다. 수만명의 피난 행렬 속에서 아픈 할머니를 지게에 지고 오다가 평택쯤에서 큰아버지를 기적처럼 다시 만났다. 피난 오는 길에 인민군이 으스스한 곳에 있다가 나타나 총을 쏘기도 했다. 얼음이 꽁꽁 얼은 임진강을 건널 때는 짹! 짹! 얼음 갈라지는 소리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후 임진강을 다시 찾아 그때 걸어 온 자리를 보니까 눈물이 막 흐르고, 피난 올 때 얼음 위를 건너던 피난민과 소달구지 끌고 오는 장면들이 눈에 선하다.

“안 통장 하면 주변에서 알아줬어요”

남으로 내려 온 이순옥씨는 대전에서 살다가 남편 안희복과 결혼하고 1962년도에 원주로 왔다. 황해도 재령 출신인 안희복씨는 이북에서 내려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쪽을 선택했다. 안희복씨는 직업군인으로 35년 정도를 태장동 육군병원 의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에는 남편 월급만으로는 5남매 키우며 살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에 구멍가게를 열었다. 친정어머니와 둘이서 가게 일을 했다.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노력을 참 많이 했다. 군인이던 남편은 가게 일에는 참 무관심했다. 제대 후에는 통장을 맡아 20년 정도 마을 일을 봤는데 12년 전에 돌아가셨다. 남편이 떠난 후 늙고 힘들어 가게 문을 닫고 사 용하던 방은 거실로 쓰고 있다.

“우리 양반은 제대하고 나서는 통장을 20년 정도 했어요.
필체가 너무 좋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지.
시에서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아 왔는지.”



남편 안희복씨와 찍은 추억의 사진



배우는 삶

가게를 닫은 후부터 문화원에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붓글씨 쓰는 취미 활동을 해왔다. 늦게 배운 한문 실력으로 서예대회에 출품해 입상도 많이 했다. 요즘은 목요일마다 학성동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내용을 프린트해서 읽고 생활에 지혜를 얻으며 노래교실에서 노래도 한다. 다른 날에는 안 좋아진 건강치료도 받고 밥상공동체에도 다녀온다.

“내가 생각하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노인들에 대한 배려 이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 이상으로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이순옥씨는 96년부터 올해까지 23년째 일기를 쓰고 있다. 남편이 병원생활 할 때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다. 글을 배우고 나서는 매일 같이 살아가는 일상을 글로 남기고 행동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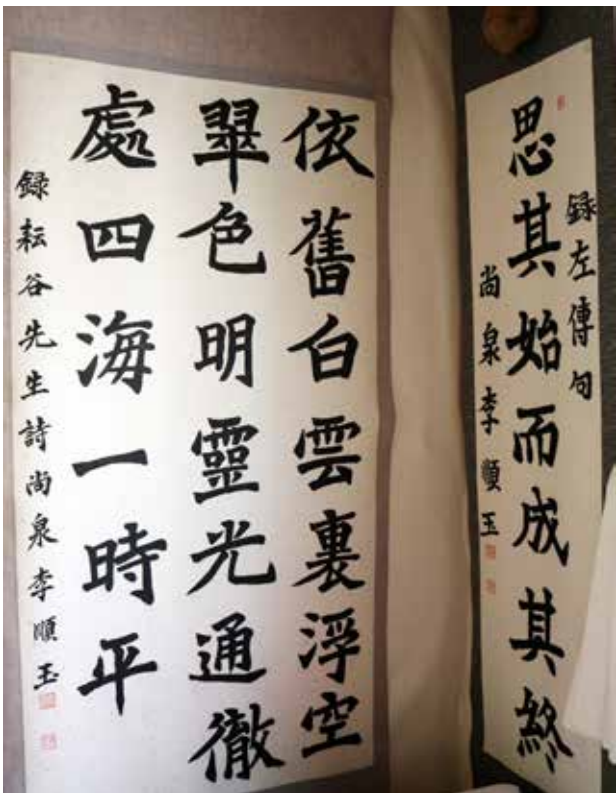
2019. 7. 2(화)

사람은 그러도 그 정은 못그린다.
꽃은 그러도 그 향기는 못 그린다.
겨울 눈은 그러도 그 빛은 못 그린다.
달은 그러도 빛은 못 그린다.
샘물은 그러도 소리는 못 그린다.

1996. 7. 10(수) 맑음

오늘도 새벽에 채소를 해다 놓고 또 자유시장에 가서 떨어진 다른 물건 해다 놓고 아침을 부지런히 해먹었다. 오늘은 10일, 고부회 날이다. 고부회에 참석을 제대로 못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야외에서 고부회 모임을 해서 부득이 따라갔다. 밀린 회비 5만원을 다 내고 왔다. 회비 밀린 것을 다 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리고 점심먹고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뜻 아니게 허은행 어머니를 거기서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사람은 막말을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인가 하노라.

이순옥 어머니 일기 중에서



손님이 주인을 기다리고, 이웃의 정이 오가는 사랑방 같은 마을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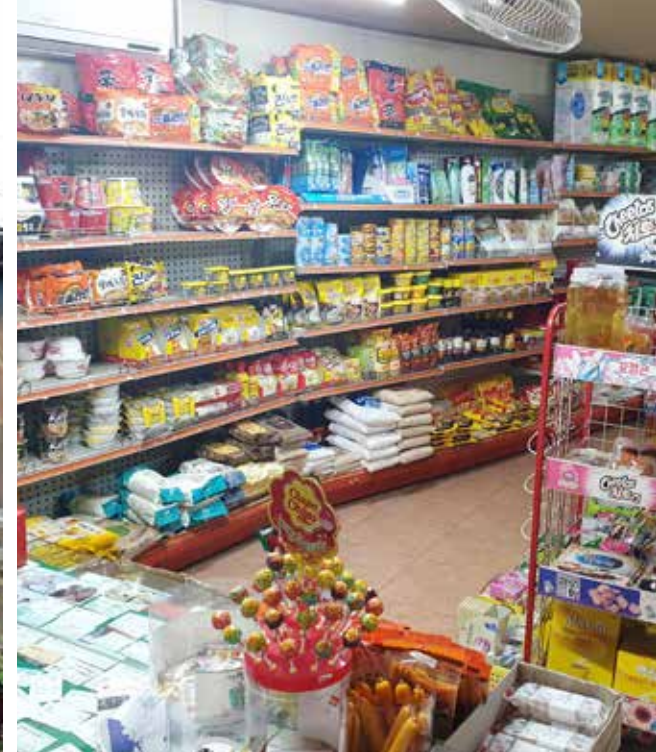
박대식(72세), 하옥순(67세)
봉산동 우물시장길, 행복마트



우물시장길에 하나 밖에 없는 행복마트는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닌 이웃의 정을 사고파는 곳이다. 지난 2011년, 문 닫은 가게를 인수할 때는 동네에 꽤 큰 마트도 있었지만 폐업하고 유일하게 남은 가게가 행복마트다. 박대식, 하옥순 부부는 가격으로 장난을 치거나 경쟁하듯 장사하면 안 되고 거짓없이 순리대로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한다. 어렵게 사는 주민들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모두가 나의 가족이고 부모같은 마음으로 맞는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전구 하나 사라와도 직접가서 끼워주고 일 나간 이웃들의 물건도 대신 받아 보관해 주고 하는 이웃을 이어주는 마을 거래소다.

물건을 보관해 주다보니 지금은 택배집배소를 설치해 놓고 일 나가고 바쁜 주민들의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것까지 해주고 있다. 큰 물건은 보관하기 힘든 비좁은 가게지만 여기에 물건을 맡기고 찾아가는 주민들은 모두 이해한다. 사람이 모이고 소식이 전달되는 이곳에는 방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제일 먼저 찾아오고 소개해 주니 간판 없는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경찰서 뒤에 봉산마을이 철거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기 힘든 주민들이 이곳에 저렴한 방을 얻어 많이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남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냥 남는 것을 떠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동네 이웃들이 방앗간처럼 찾아주는 것, 그것이 그냥 좋다.

행복마트는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을 기다리는 가게이다. 박대식, 허옥순 부부는 잠시라도 가게를 비워놓지 못한다. 아이들이 와서 잠깐 식사하러 나가도 전화가 와서 찾기 때문에 문 앞에 몇시쯤 온다고 꼭 적어놓고 간다. 이곳은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힘들어서 멀리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마을상점이다.



‘우리의 신조, 최고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자’

행복마트 안에는 박대식, 하옥순씨의 삶의 지표인 가훈과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다. 박대식씨는 학교에 다닐 때 ‘최고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자’ 라는 가르침을 부모님께 들으면서 자랐다. 어른이 된 후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 온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고맙게도 잘 성장했다.

박대식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행정공무원으로 3~4년 정도 근무하다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뒀다. 아내와는 1975년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에 직업으로 인기있던 운전기사를 하기 위해 면허증을 취득했다. 1종 대형면허를 따고 경력도 없이 4일 만에 서울 봉천동 55번 시내버스를 운전했다. 그때 공무원 봉급이 7만원 이었는데 버스운전을 하면서 받은 첫 봉급이 13만원 이었다. 그렇게 2년 이상 서울에서 일을 하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원주로 와서 운전 일을 계속했다. 1980년대 말, 속초에서 한시(限時)택시¹를 700만원에 사서 운행하다 제도가 없어지면서 팔았다. 한시택시를 팔고 난 후 몇 개월 후에 그 택시가 다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것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는지 몰랐다. 그 후 봉산동 삼광택지에서 작은 가게를 하다가 2011년부터 우물시장에서 행복마트를 하고 있다.

박대식씨는 2014년부터 마을의 반장 일을 봐 왔는데 재작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원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예전에 부모님 댁에 드나들 때는 잘 몰랐는데 살아보니 괜찮은 마을이다. 동네가 낙후된 것 빼고는 시내하고도 가깝고 살기 참 좋은 곳이다. 봉산동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되어 내가 사는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1 한시(限時)택시 제도는 1979년 정부가 택시 직영화 특별보완조치를 시행하면서 모든 지입 차주에게 노후와 대체 1회(5년)에 한 해 한시택시 면허를 주면서 생겨난 제도였다. 그러나 변칙적인 경영방식과 영세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한시택시는 1987년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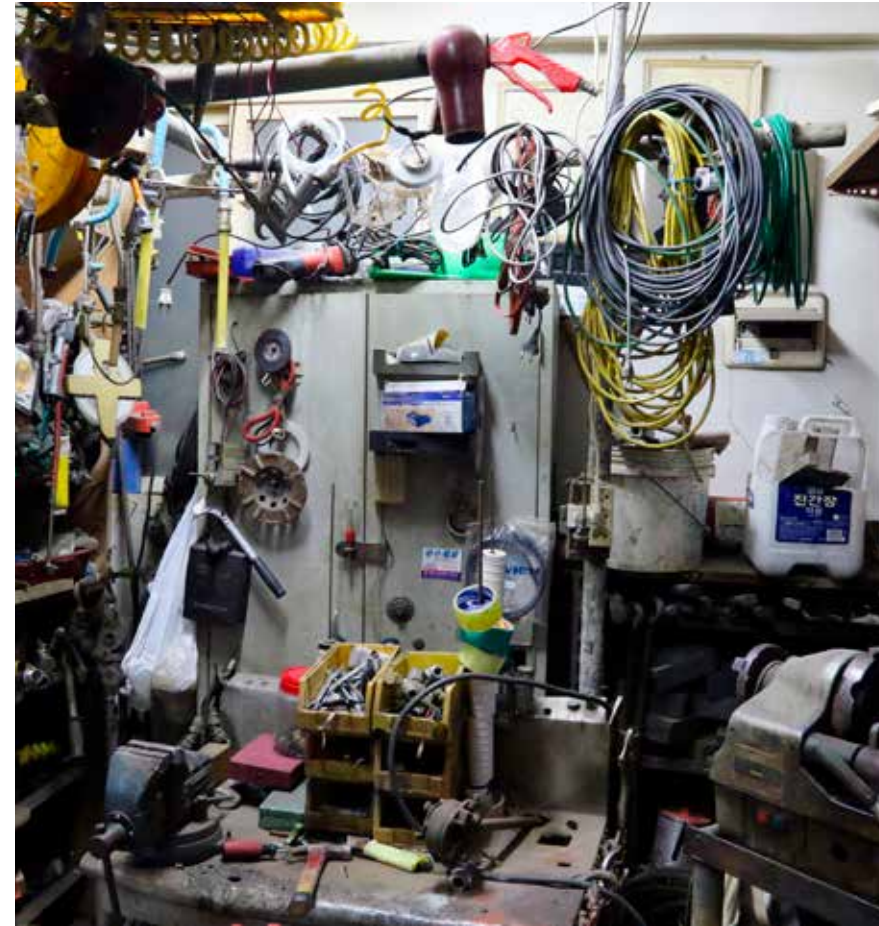
집집마다 온기를 놓아 준 봉산동 맥가이버

장병섭(61세)
우물시장길, 대성사보일러

산삼을 감정해 달라는 전화,
아파트 누수를 잡아 달라는 급한 전화벨이 울린다.

올해 45년째 우물시장에서 대성사 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장병섭씨는 이 마을에서 2대째 살고 있는 우물마을 토박이다. 1971년, 22살에 군대를 제대한 후, 울산 진해해수욕장에서 여름철 감자 부치기 장사를 하려고 잠시 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일러 판매 일을 시작했다. 판매를 하다 보면 설치까지 하게 되는데 시공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1983년도에 허가를 내고 대성사 보일러를 개업, 본격적으로 보일러 판매, 시공, 집수리 사업까지 확장을 하는 등 전성기를 보냈다. 보일러 시공은 폭 꺼진 옛날 부엌을 채우고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입식으로 만드는 집수리 사업으로 이어졌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20명까지 있을 정도로 번창했다. 80년대 봉산동 지역에는 장병섭씨의 보일러가 안 들어간 집이 없을 정도로 온 마을에 온기를 놓아 주었다. 얼마 전까지 철물점도 함께 하다가 힘들어서 지금은 보일러만 하고 있다.

인터뷰 중에도 개의 목줄이 끊어져 도구를 빌리러 동네 주민이 찾아오고, 산삼을 감정해 달라고 사진을 보내는 전화, 오래된 아파트가 누수되어 급하게 수리해 달라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었다. 가히 봉산동의 맥가이버라 불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대성사 보일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가게



30년 이상을 사용한 미싱기계

1980년대 후반, 한창 잘 나가던 청년 장병섭씨는 더운 여름 날씨에 금대리에서 텐트를 치고 출퇴근 했다. 당시 32살이던 장병섭씨는 금대리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아내를 만나 운명처럼 평생의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아내는 봉평교 근처에서 수연식당이라는 음식점을 했으나 보일러 사업이 너무 바빠 식당일을 그만두고 가게 일을 빠주기 시작했다. 사업이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라 은행가고 일꾼들 밥해준다 하루가 다갔다. 한창일 때는 깍쟁이로 돈을 긁어모을 정도로 사업이 잘됐다. 지금은 비석거리에서 '심마니'라는 산야초식당을 하고 있다. 장병섭씨는 보일러 기술 뿐만 아니라 산을 다니며 익힌 산야초 전문가이기도 하다. 심마니 식당에서는 장씨가 직접 채취한 산야초를 이용한 특별한 밥상을 차린다. 장병섭씨는 60이 넘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축구로 건강을 관리하며 생활체육 현장에서 뛰고 있다.

“개밭이 아닌 재생이지만, 제대로 된 계획으로 만들었으면...
제방에서 내려보면 이렇게 낙후된 마을도 없다.”

30년, 세월의 숨을 틀다



허옥례 (70세)
학봉정길, 봉산 신흥솜틀집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에서 태어난 허옥례씨는 22살에 북방면 출신의 남편 김재환(76세)씨와 결혼했다. 결혼 후에 학봉정 아래 오막살이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36살부터 남편의 가게를 얻어서 솜틀집을 하다가 1993년도에 지금의 이 건물을 지어 직접 가게를 해오며 30년이 넘는 세월의 숨을 틀고 있다. 솜트는 기술은 춘천에서 솜틀집을 하던 오빠의 가게에서 배웠다.

봉산신흥솜틀집은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방식으로 숨을 트는 30년이 넘는 솜틀집이다. 이 솜틀기는 2번째 교체한 신흥솜틀기로 20년 정도 나이를 먹었다. 간단한 고장이라면 남편이 수리를 했지만 크게 고장 나면 서울에서 수리를 해야 했다. 한창때는 기계가 좋으니 일거리도 많았고 사람들이 자주 찾았다. 80년대 솜을 한창 틀 때는 한근(600g)에 300원을 받았다. 솜 한근이면 10분 이상 틀어야 되고 양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혼수를 새로 사줄 수 없는 형편인 부모들은 자기네들의 이불을 안 쓰고 있다가 새로 틀어서 만들어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다. 솜틀 때는 먼지도 많이 나고, 튼 다음에는 사방을 돌면서 바느질로 껴매줘야 한다. 솜이불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기계를 돌릴 수 있는데 지금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하니까 일도 아니다. 지금은 1kg에 2천원을 받는다.





다섯 아이들 모두 원주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운동회 때는 앉을 곳도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았고 밥을 해서 싸가고 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도로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 우물시장 당간지주 옆의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이곳에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눈으로 보는 것이라도 배워서 기계라도 돌려,
아이들 공부라도 가르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배운거지.’

예전에 혼수로 많이 해오던 목화솜이나 명주솜 같은 두꺼운 솜이불을 얇고 가볍게 만들어 재사용하기 위해 솜을 트는 집을 솜틀집이라 한다. 솜이불은 길 커버를 모두 벗겨내고 순수 솜만 솜틀기계에 넣고 얇게솜결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 그 후에 곰팡이나 각종 이물질 제거한 소독과정을 거친다. 깨끗하게 틀어진 솜은 나오자마자 속싸개를 씌워서 꿰매준다. 원주에서 봉산 신형솜틀집처럼 전통 방식으로 솜을 틀고 손 바느질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발굴하는 마을의 기록은
과거를 정확하게 읽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체 문화자원이다.

우물시장

우물



이웃들의 소통의 장소 우물의 문화적 가치

‘물이 곧 생명이고 밥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물은 전통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던 삶의 젖줄이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었으며 그로 인한 우물의 발견은 공동체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우물은 인간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생활의 수단으로 발굴한 시대적 문명이었다.

우물은 생명의 잉태공간으로 인식되며 제의적 공간, 치유와 재생의 기능을 했던 장소이며 공동체의 상징적, 장소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마을의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했다. 또한 우물은 역사적 신화를 품고 있는 곳으로 신라의 박혁거세신화¹와 같은 건국신화, 강릉단오의 주신인 범일국사설화²등 신성한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 1 진한 6부의 조상들이 덕이 있는 자를 임금으로 정하려고 자제들을 이끌고 알천(閼川)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내려다보니 양산 아래 나정 우물가에 번개 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서 땅으로 비치고 있었다. 흰 말 한 마리가 꿇어 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붉은 알 한 개를 놓고 하늘로 올라갔다. 알을 깨고 나온 남자아이가 신라 건국시조인 박혁거세였다.
- 2 강릉 학산의 양갓집 규수가 우물에 물을 길으러 갔다. 바가지에 물을 뜨니 해가 담겼다. 처녀는 그 물을 마시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후에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였다.



우물_아카이브 자료사진

“길 가다가 한바가지 떠먹던 샘물이 참 맛있었다.”

-우물시장길 남철현

원주시 지명 유래를 보면 우물시장터는 원래 넓은 터로 군사훈련을 하던 곳으로 열무당이라는 군막사가 있었으나 일제 때 없어지고 우시장이 들었었다가 우물시장을 기반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우물시장의 시초가 된 우물은 처음에는 샘이 나는 작은 연못 형태였으나 나중에는 우물을 파고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 먹었다. 동네의 유일한 공동 급수시설인 ‘우물터’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작은 좌판이 열리고 시장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수도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의 유일한 급수시설인 ‘우물터’는 공동체가 소통하고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사회적 기능을 했다. 봉산동에는 우물시장 외에도 많은 우물이 있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모자원과 봉산 철길마을에도 우물이 있었다. 모자원의 공동 우물이 없어졌을 때는 개륜마을 신선암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봉산동 우물시장길 백설세탁소 맞은 편 골목에 있던 ‘우물터’는 수도가 들어오고 주택이 지어지는 1970년대에 없어지고 현재는 위치만 알 수 있다. 봉산동 주민들도 이 우물을 중심으로 만남과 소통, 정보의 교류를 통해 마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잊혀진 우물이지만 그 장소적, 상징적 가치의 복원을 통해 우물시장과 연계한 마을문화, 역사 콘텐츠 자원을 발굴하여 공동체 활성화의 자산으로 되살려야 한다.



네문이 있는 우물시장





봉산동 우물시장 겨울 2019



사람과 마을이 공존하며 살아온
수천년 삶의 기억을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작업이다.

봉산동 사진일기

기억이 만든 마을



이야기가 있는 봉산

무위당길, 무진길, 배말길, 봉산길, 봉천길, 임윤지당길, 학봉정길 그리고 중앙산...

고급주택과 신도시의 개발에 밀려나면서 현대화된 도시로의 기능은 많이 잃었지만 그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옛 정서와 마을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기억의 장소로 다가온다. 시대에서 조금은 물러나 있는 듯 하지만 느린 걸음, 숨이 있는 호흡으로 존재하는 길 위의 시간과 공간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봉산동에는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과 길이 남아있다. 조선 태종대왕과 관련되어 전해오는 화시래 마을은 태종이 스승 윤국 선생을 찾아 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에 들린 마을이다. 쓸쓸하게 길을 걷던 태종은 서쪽을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소리개)를 보고 태종은 호반(무관)에게 쏘아 떨어뜨리면 새가 들고 있는 지역을 주겠노라고 하였다 한다. 호위하던 호반이 활을 쏘아 새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태종이 기뻐하며 새가 떨어진 부근 일대를 호반에게 하사하였다. 그후 이곳 사람들은 활이 떨어진 자리라 하여 궁실(弓失)이라 하였으며 이곳을 흐르는 하천을 궁실천(弓失川)으로 부르다가 음역하여 화실천, 화시래, 화실마을로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봉천(원주천)이 흐르는 우물마을에는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인 당간지주가 역사의 상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7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시냇물이 당간지주가 서있는 벼랑 아래로 돌아 나갔다 한다. 벼랑에는 거북이 형상의 넓은 바위가 있어 구정(九停)이라고도 하였으며 또 다른 이야기로는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왕사라는 사찰이 있어 천왕별(들)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이곳은 조선시대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1721~1793)의 평생을 살았던 곳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철길 건너 봉산길을 올라서면 천왕사지(天王寺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67호 석조보살입상이 원주를 내려 보고 있다.

우물시장길은 봉산동 주민들의 장소적,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길이다. 수도가 없던 시절 마을의 유일한 급수시설이었던 우물시장은 공동체 교류의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우물시장길과 함께 시대적 가치를 앞서간 사회운동가이자 생명사상가인 무위당 선생이 걸었던 무위당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학봉정 아래 무진(戊辰)고갯길은 봉산동에서 태장1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황무진(黃戊辰 1568 ~1652)이라는 효자가 이곳에서 태어났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홀어머니를 모시는 무진은 하늘이 낸 효자(出天之孝子)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의 극진한 효심으로 호랑이도 감동했다. 무진이 어머니를 위해 약을 지어 밤중에 이 고개를 넘을 때면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업고 넘어 가거나 호위했다는 전설이 있다. 시간이 허락하면 효자의 가능성을 시험하듯 고개를 넘으며 지나온 시간을 회상해 보자 혹시, 호랑이는 몰라도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함께 걸어줄지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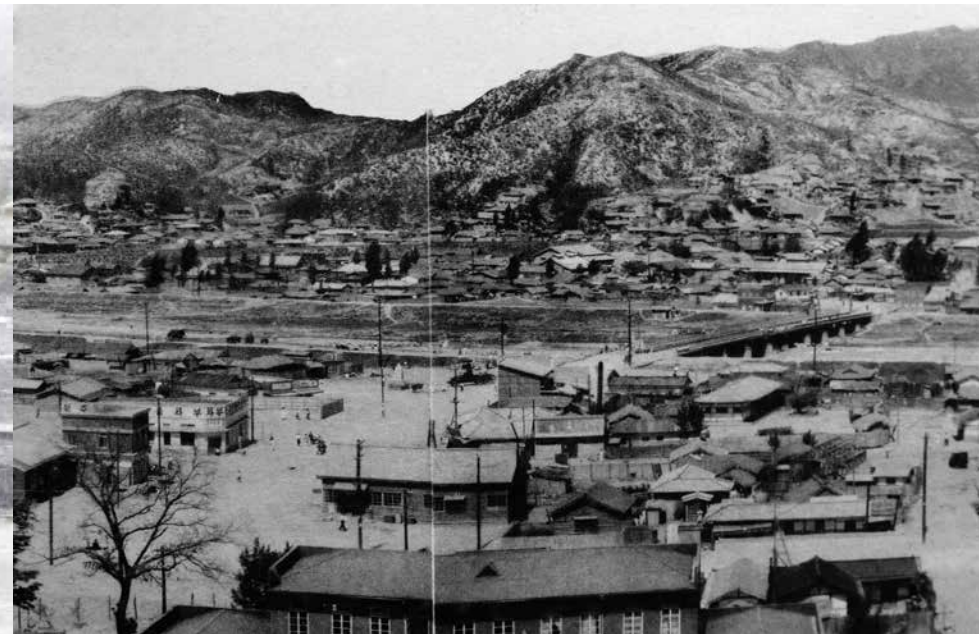
원도심의 골목길과 구멍가게, 오랜 마을에 남아있는 서민들의 삶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기억이고 복원해야 할 가치이다. 어쩔수 없는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고 순환하는 개발의 바람을 완전히 피해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삶의 현장을 자세히 기록하고 남기는 일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과정의 기록이고 공공의 유산이다. 마을을 기억하는 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고 다가섬이다.

1940



봉산에서 바라본 원조초등학교와 우물시장 전경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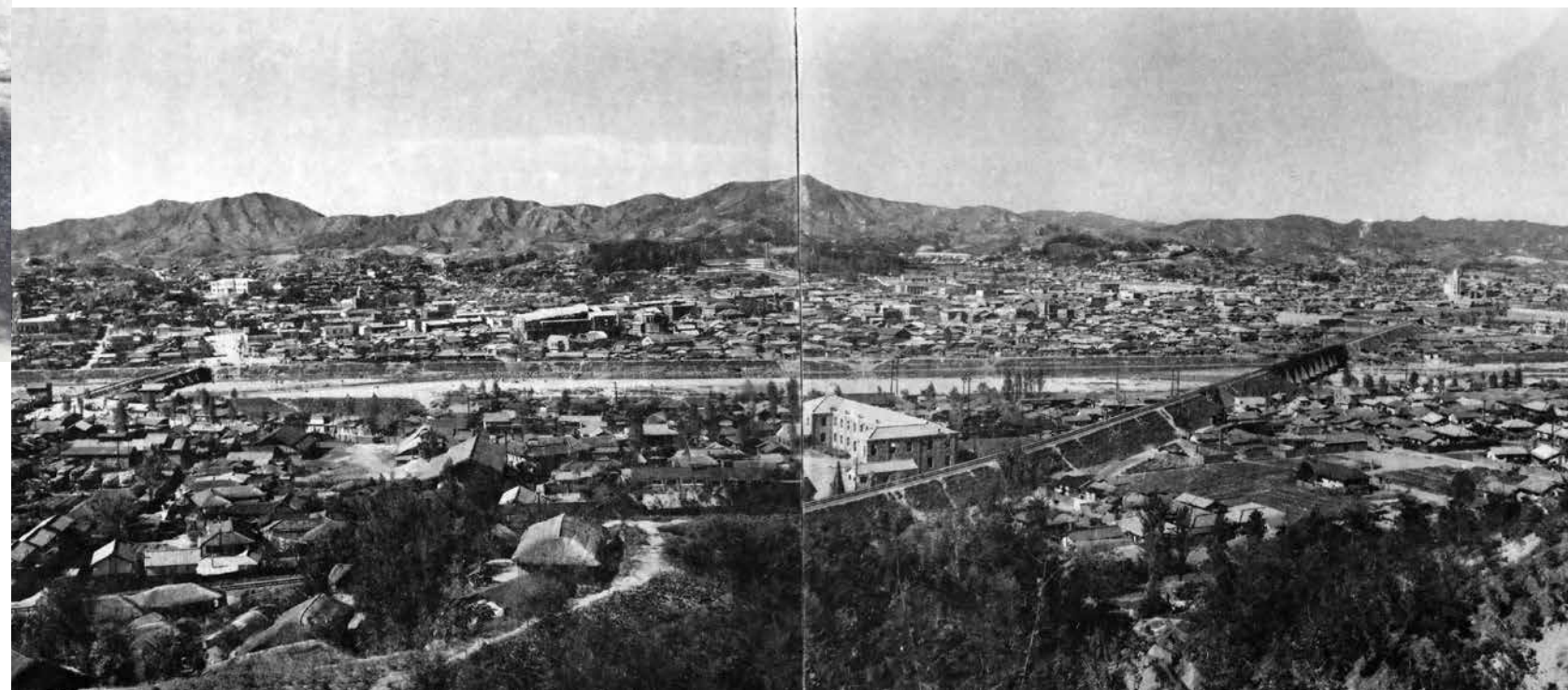
1950



원동 남산에서 바라본 봉산동 원주교와 배말 1958



원주사방관리소 1959



봉산에서 바라본 원주와 봉산동 1959

1960



원주교 준공식 1960



봉산동 전경_ 원주교 건너로 원주대학, 원주경찰서, 원주초등학교가 보인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원동성당 첨탑이다. 1965



봉산에서 바라 본 봉산동과 원주시 1961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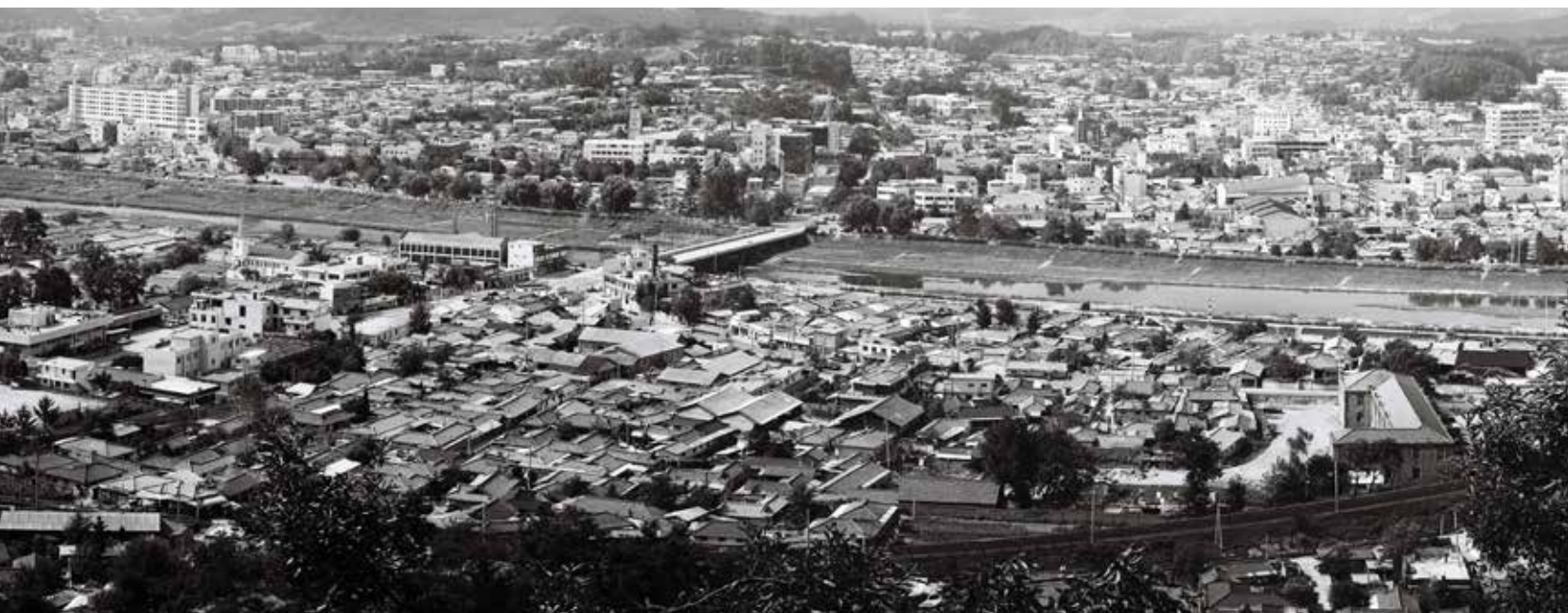
옛 중앙성결교회1 1970년대



봉산동과 원주천 1974



옛 중앙성결교회2 1970년대



봉산동에서 바라본 원주시 1978

1980



원주교와 봉산동 (쌍다리) 1983



자연보호전진대회 원주천 1988

1990



봉산동_사진 원주시 전경 1998

2000



봉산마을 2010



봉산마을 2011



로아노크광장 2012년 철거



원주천 제방확장 공사전 2012



봉산동 철뚝마을 2012



봉산동 무진마을(2019년 재해위험지구로 철거)



옛봉산동행정복지센터 2013



봉산동 전경 2012



옛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2013 (2017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



2019



봉산동

봉산동을 지나가는 중앙선



봉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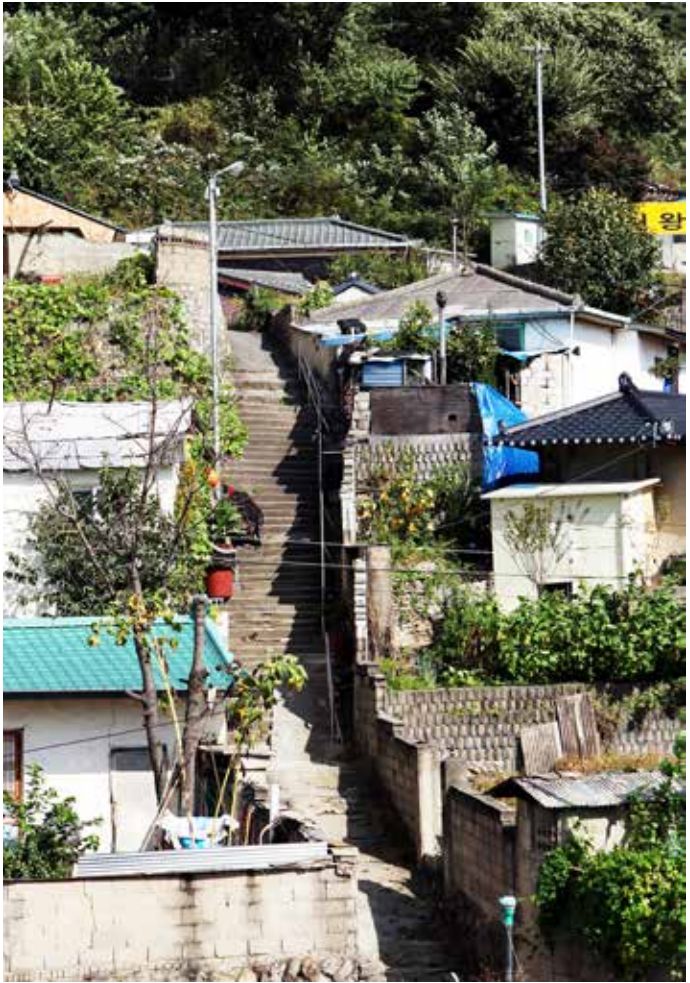
봉산마을



봉산 철뚝마을_현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모두 철거되었다



개륜마을 천사들의집



봉산 철뚝마을 재해위험지구 철거



원주영락장로교회 봉천길 49



봉산 철뚝마을 재해위험지구 철거



임윤지당길



영천교회 봉산길 42



봉산감리교회 봉산동 임윤지당길 6





원주천

봉천 독방길과 장일순

장일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중의 하나가 봉산동을 감싸고 흐르는 봉천 독방길이다. 지금의 길은 예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장일순에게 이 독방길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채근하고, 근신하며, 마음을 다지는 일종의 수행길이 아니었나 싶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꼭 원주천 독방길을 걸어서 오지요. 혼자 걸어오면서 이 못난 나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또 내가 이리이러한 허튼소리를 많이 했구나, 오만도 아니고 망언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했구나 하고 반성도 합니다. 걷다가 문득 발밑의 풀들을 보게 되지요. 돌 틈에 끼어서 짓밟혀 있으면서도 풀이 툭 버티고 서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에 밟혀서 구멍이 나고 흙이 묻어 있건만 그 풀들이 대지에 뿌리내리고 밤낮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해와 달을 맞이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모습마저도 내가 못 미치거든요. 그 길가의 모든 잡초들이 내 스승이요. 벗이 되는 순간이죠.

나 자신이 건전하게 대지위에 뿌리박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참으로 부끄러워집니다. 걸어오면서 내 마음을 씻는다고 할까....”

자료 출처 : 장일순의 '삶의 도량에서', 2019 무위당 길 걷기, 별의별교육문화협동조합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상문화를 발굴하고 자원화 하기 위한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한다.
기억의 교류와 나눔으로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매개로서의 기록을 지향한다.

소규모 재생사업



봉산동 마을기록

- 지역 근·현대 역사문화자료와 지역재생 기초자료의 수집·기록
- 지역성에 기반한 마을기록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의 가치 발굴
- 마을기록화 사업의 성과물로 봉산동 마을기록지 발간

봉산동 마을교육 교재 제작

- 봉산동의 인물, 문화재, 생태 등에 대한 교육 교재 제작
- 원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읽기 교육

봉산동 마을어르신 자서전 모음집 발간

- 지역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자서전 쓰기 수업
-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가 우리동네 역사이고 보물이라는 가치의 발견
- 자서전 쓰기 수업 후, 완성된 원고를 모아 자서전 모음집 발간



봉산동 우물시장 영화제

- 주민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의 유대감 강화
- 지역 주민협의체, 기관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살맛나는 마을만들기 공생방안 모색

봉산동 우물마을 잔치

- 봉산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유도과 이해 확산을 위한 공동체 축제
-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상생방안 모색

주민참여 도시재생 디자인단 구성

- 주민참여 도시재생 디자인단의 교육과 회의를 통한 봉산동 환경 개선 및 마을 디자인 참여
- 마을잔치 및 골목전시회 등 이야기가 있는 봉산동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기록활동_원주초등학교



마을기록작업_원주초등학교



마을기록작업



우물마을 잔치

봉산동 소규모재생사업 주민참여 도시재생 디자인단 모집

교육기간 2019년 4월 16일 ~ 6월 4일
매주 화요일 18:30 [2시간]

교육대상 봉산동 주민협의체 구성원 및 주민, 봉산동 마을디자인에 관심있는 자

모집기간 2019년 4월 4일 ~ 4월 15일

교육장소
· 주민디자인단 교육: 봉산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 주거지 리움 교육: 봉산동 자율방범대 및 우물시장길 공-폐가

신청방법 전화접수 /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734-0607

주 최 원주시

주 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734-0607

상세일정

구분	주제	강사
4.16(화)	[주민이 직접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전미선 (원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4.23(화)	[주민이 직접 변화시키는 우리 마을]	손광주 (장신승인도시재생협동조합 상임이사)
4.30(화)	[주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마을]	손정민 (성미산학교 사무국장)
5.07(화)	[주민 모두 알릴 수 있는 활기 넘치는 마을] 선진사례지 견학 - 원주시 도시재생사업지	김덕우 (영주도시재생특위 핵심가)

구분	주제	강사
5.14(화)	[마을에서 공간이 가지는 의미]	서유림 (도시공간협동조합 팀장)
5.21(화)	[주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우리 동네]	
5.28(화)	[내 집은 내가 고쳐서 산다]	전문가
6.04(화)	[우리 마을은 우리가 함께 꾸민다]	전문가

※ 본사업은 원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뒷면

■ 봉산동 마을 기록화 사업

▶ 봉산동과 관련된 지역의 근·현대 마을기록화사업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봉산동과 우물마을의 변화상을 포괄한 역사문화자원
대상: 봉산동, 우물마을,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등
대상: 봉산동, 우물마을,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등

교육기간 2019년 3월 1일 ~ 7월 31일

교육대상 봉산동과 우물마을의 기록화 초창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자

교육장소 봉산동 주민협의체 회의실, 033-347-3334 / 010-0541-2233

신청방법 전화접수 /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734-0607

※ 교육대상: 봉산동, 우물마을,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등
대상: 봉산동, 우물마을,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등

■ 봉산동 마을 교육 교재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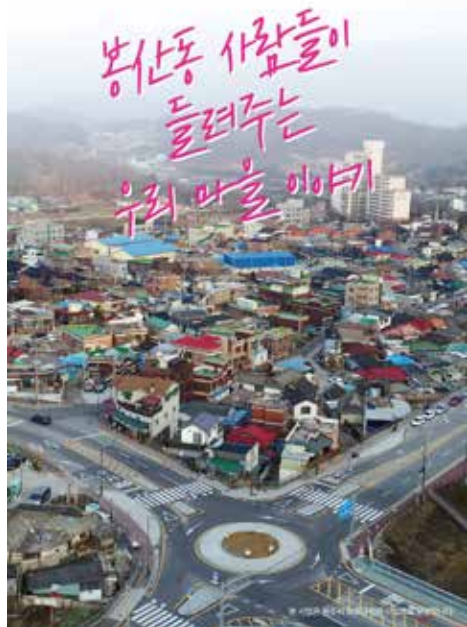
▶ 봉산동 마을 교육 교재 출판

▶ 봉산동 마을 교육 교재 출판

■ 봉산동 마을 어르신 자서전 모음집 발간 사업

▶ 봉산동 마을 어르신 자서전 모음집 발간 사업

▶ 봉산동 마을 어르신 자서전 모음집 발간 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 봉산동 이야기가 있는 마을 만들기

우물마을 잔치



일 시 : 6월 7일 (금) 오후 4시
장 소 : 영락교회 앞마당

- 부스행사 (오후 4시~6시)
장수사진 촬영, 양·한방 건강상담, 한복체험, 네일아트 등
- 무대행사 (오후 5시~6시)
축하공연, 도시재생 디자인단 수료식 등
- 잔치국수 나눔 행사 (오후 6시~7시)



마을잔치로 인하여 행사장 인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쪽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주민들을 위한 무료행사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봉산동 도시디자인단 현장견학



민간네트워크 도시재생협약식



봉산동 도시디자인단 교육



봉산동 주민협의체 창립 총회



원주초등학교 마을교재 수업



봉산동 디자인단_주거지 리폼 실습



우물마을 잔치



우물시장 영화제



우물마을 잔치



자료출처

도서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 ‘청림의 지도자 최규하」원주시역사박물관 2019

「2019 무위당 길 걷기」별의별교육문화협동조합 2019

「봉산을 품은 학봉정 이야기」원주시역사박물관 2018

「임윤지당 선양관 소개서」원주역사박물관 2018

「역사 속 원주의 여성인물」원주시 2016

「원주학술총서 제23권」원주시 2007

「원주시 50년사」원주시 2005

「원주시사, 현대편」원주시 2000

「원주의 지명유래」원주시 1999

「원동 100년사」천주교원주교구 원동교회 1999년

「무위당 장일순」무위당사람들

사이트

원주시 www.wonju.go.kr

원주시역사박물관 whm.wonju.go.kr

원주시 통계정보 <http://stat.wonju.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원주초등학교 <http://wonju.gwe.es.kr>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대통령기록관 <http://www.pa.go.kr>

문화재청 www.cha.go.kr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http://e-gonghun.mpva.go.kr>

네이버 지식백과

이 책은 국토교통부와 원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